

별첨

금융권 녹색금융 핸드북

[Green-Finance Handbook]

2021. 12. 8.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여신협회

목 차

I. 녹색금융 주요내용	1
1. 녹색금융 동향	1
2. 녹색금융 추진방향	9
II. 녹색금융 가이드라인	30
1. 개괄	30
2. 금융회사의 녹색금융 추진체계	32
3. 녹색금융의 실행과 관리	33
4. 유의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의 관리	36
5. 온실가스 배출량의 관리	38
6. 리스크 관리 및 평가	38
7. 공개 등	39
[별표 1] 녹색금융 대상(예시)	42
[별표 2] TCFD 권고안 공시항목	44
III. 녹색금융 운영사례	45
1. 금융지주	45
2. 은행	51
3. 생명보험	57
4. 손해보험	61
5. 증권사	64
6. 자산운용사	66
7. 여신전문금융업	67
8. 해외 금융회사(TCFD 공시 관련)	69
IV. 관련 QA 및 실무 해석례	76
V. 용어의 정리	107
1.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배출 관련	107
2. 녹색금융 및 기후리스크 관련	109
3. ESG 관련	112
[부록1] 해외동향 및 국제기준	114
1. 주요연혁	114
2. 주요 국제기준(TCFD 권고안, 적도원칙, EU 실행계획, UN 선언문)	115
[부록2] 「금융권 녹색금융 핸드북」 관련 담당자 목록	158

I 녹색금융 주요내용

1 녹색금융 동향

가. 국제 동향

지난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약에서 190여개 국가는 기후 변화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파리기후협약의 주요 골자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2°C 미만 수준으로 제한하고, 더 나아가 1.5°C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하자는 것이다.

※ 파리기후협약 주요내용

- ❶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2°C 미만으로 제한
- ❷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설정 및 5년마다 상향 조정
- ❸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 탄소시장 신설
- ❹ 기후변화에 대비한 적응력 강화 및 관련 보고서 제출
- ❺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 강화
- ❻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자원 마련 및 지원
- 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정보 공개 및 2023년부터 5년마다 이행상황 점검

파리기후협약 전후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여러 제도나 정책의 수단으로서 금융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파리기후협약 이전에는 1992년 UN 환경계획의 금융부문 이니셔티브(Financial Initiative, FI) 출범, 1997년 지구 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 채택, 2003년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EP) 출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2013년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조성 등 금융부문에 있어 기후·환경리스크 관리를 위한 국제적 움직임이 계속되어 왔다.

나아가 파리기후협약을 모멘텀으로 국제적인 논의는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015년 세계 각국의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등으로 이루어진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설립, 2017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으로 구성된 녹색금융 협의체(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NGFS) 설립, 2018년 3대 주요목표 및 10대 실행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EU의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실행계획) 발표 등 기후·환경리스크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부문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등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이루어졌다.

※ EU 지속가능금융 10대 액션플랜

3대 목표	10대 실행계획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자본흐름 전환	❶ 지속가능활동을 위한 EU 녹색분류체계 개발
	❷ 녹색금융 상품을 위한 식별기준 및 인증제도 개발
	❸ 지속가능 프로젝트(인프라) 투자 촉진
	❹ 금융자문 제공(적합성 평가)시 지속가능성 요소 고려
	❺ 지속가능성 벤치마크(예: 성과 판단기준) 개발
리스크 관리에 지속 가능성 고려	❻ 신용평가와 시장조사시 지속가능성 고려
	❼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사의 충실의무 범위에 지속가능성 고려의무 포함
	❽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에 지속가능성 고려
투명성 및 장기 성과주의	❾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공시 및 회계규정 강화
	❿ 지속가능한 기업 지배구조 촉진 및 자본시장의 단기 성과주의 지양

* '18, EU Action Plan: Financing Sustainable Growth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 중 UN 환경계획의 금융 이니셔티브(Financial Initiative, FI)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민간 금융권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니셔티브로 해당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국내 금융지주 등을 포함해 전 세계 350개 이상 회원과 금융감독원을 포함해 100여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UN 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는 은행업권에 적용되는 책임은행원칙(PRB), 보험업권에 적용되는 지속가능한 보험원칙(PSI), 책임투자원칙(PRI)을 발표해 왔으며, 지속가능한 금융시장의 관행 확립과 ESG 관련 문제를 각 금융당국에 전파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UN 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가 마련하여 전 세계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선언문(환경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금융기관의 UN 환경계획 선언문)은 1992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 정상회의(The Earth Summit)를 앞두고 뉴욕에서 은행업권 선언문으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2010년 전 업권 선언문으로 통합되어 2011년 최종본이 완성되었다. UN 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 선언문은 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참여의지와 금융권 모범사례의 전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에는 TCFD의 2017년 공개 권고안, NGFS의 2019년 6대 권고안과 2020년 금융감독기관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2020년 7월에 개정된 적도원칙 등은 기후리스크가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국제적인 주요 표준안(이하 통칭하여 국제기준으로 일컫기로 한다)으로 인식되고 있다. EU도 지속가능 금융 액션플랜의 10대 실행계획 중 첫 번째 계획(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EU 녹색분류체계 구축)의 이행을 위해 녹색분류체계(Taxonomy)를 발표함으로써 녹색분야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위한 국제적인 표준도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NGFS 6대 권고안 주요내용

- ❶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금융안정성 모니터링 및 미시적 감독에 반영
 - 금융시스템의 기후 관련 재무적 리스크 평가
 -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건전성 감독에 반영
- ❷ 지속가능 요소를 포트폴리오 관리에 반영
 - 중앙은행, 연기금 등에서 지속가능성 요소를 반영한 포트폴리오 구축 선도
- ❸ 공공기관의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평가방법론 공유
- ❹ 금융-산업의 녹색금융 역량 동반 향상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식 공유
 - 이해관계자에게 기후변화 리스크 및 기회를 설명할 수 있는 자체 역량 향상
 - 개발도상국의 인식과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지원 제공
- ❺ 기후환경 관련 정보공시체제 구축
 - NGFS 구성원들은 TCFD에 대한 지지를 공동으로 이행
- ❻ 녹색경제활동 분류체계 마련
 - 기후·환경 관련 리스크 평가 및 관리의 기반, 녹색금융의 투명성 강화

* '19.4, A Call for Action – Climate Change as a Source of Financial Risk(NGFS)

각 금융업권을 대표하는 국제 금융기구도 기후리스크의 분석 및 대응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과 바젤위원회(BCBS)는 2020년 그린스완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가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바젤위원회는 2019년 NGFS 가입을 시작으로 산하위원회 및 기후리스크 실무그룹(TFCR)을 설치해 기후리스크 대응 업무에 착수했고, 2021년 중 기후리스크의 측정 및 평가방법론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업권 뿐 아니라 보험 등 여타의 국제 금융기구도 기후리스크에 대한 평가방법 마련에 동참해 오고 있다.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는 기후리스크를 2020년부터 향후 5개년 전략 및 재무계획의 5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포함하여 기후리스크 감독방안 마련에 착수했고, 보험핵심준칙인 ICP에 현재의 준칙 틀 내에서 기후리스크를 고려하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나. 국내 동향

우리나라도 국제적 동향에 따라 기후변화가 금융부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2020년 출범한 녹색금융 TF가 그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8월 녹색금융 추진 TF 첫 회의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리스크를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구축하고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해 가겠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관계부처 합동 2050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2021년 1월 녹색분야 자금지원 확충, 녹색분류체계 마련, 기후리스크 관리·감독계획 수립 및 기업 환경정보 공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을 공개하였다.

※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 세부과제



* '21.1,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제3차 녹색금융 추진TF)

국내는 기본적으로 녹색금융 추진계획에 담긴 내용을 위주로 녹색금융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5월 금융당국, 정책금융기관 등 13개사가 모여 TCFD 및 TCFD가 발표한 권고안에 대해 지지를 선언하였으며, 같은 날 금융위원회와 7개 정책금융기관 및 금융유관기관이 녹색분야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의 추동력을 부여하기 위해 그린금융 협의회를 출범하기도 하였다.

글로벌 논의동향과 비교해 볼 때, 국내 녹색금융에 대한 논의의 진행이 이른 편은 아니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국내 금융회사는 국제적 동향에 뒤처지지 않도록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아가며 논의의 중심을 녹색금융에서 ESG 분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이 핸드북은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녹색금융 추진계획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생적인 녹색생태계가 육성될 수 있도록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모범사례를 제안하기 위함이다. 이하에서는 주로 TCFD, NGFS 및 적도원칙 등 국제기준이 제시하는 권고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금융회사가 녹색금융 업무와 리스크 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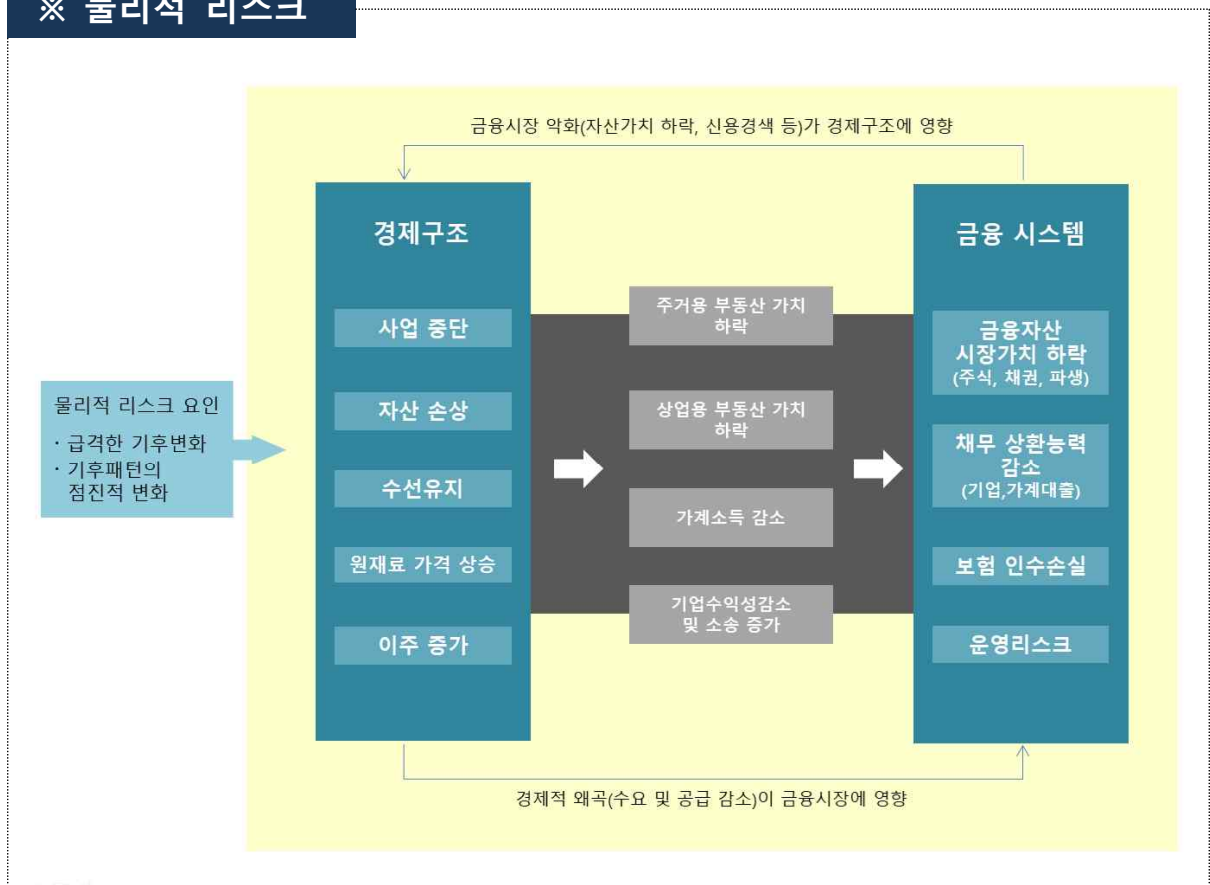
가. 녹색금융과 기후·환경리스크

녹색금융은 금융회사가 녹색산업 및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업, 자산 등에 투자, 대출 또는 보증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녹색금융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취지는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를 지원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조속한 전환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도 녹색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다.

녹색금융과 관련한 리스크는 대표적으로 기후리스크를 꼽을 수 있다. 여러 국제기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기후리스크는 기상이변에 따른 물리적 피해나 저탄소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영악화 등이 금융부문으로 파급될 위험으로 정의한다. 전자는 물리적리스크(physical risk), 후자는 이행리스크(transition risk)로 일컫는다.

물리적리스크는 급격한 기후변화나 기후패턴의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야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주지역에 홍수로 인한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이는 해당 거주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의 담보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은행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실행한 대출의 회수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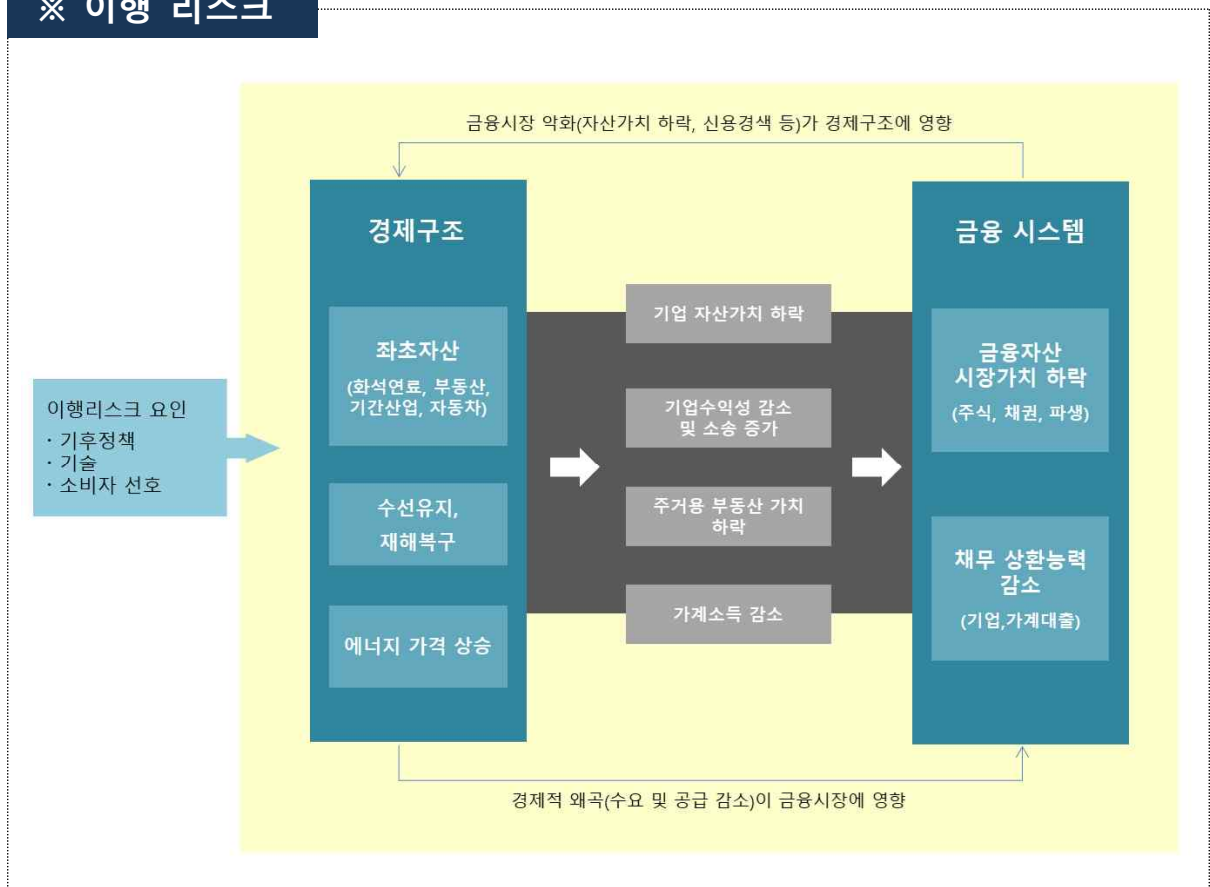
※ 물리적 리스크



* '20.5, Guide for Supervisors - Integrating climate-related and environmental risks into prudential supervision(NGFS)

이행리스크는 기후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정책이나 기술의 진보 등으로 인해 기존 산업을 지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탄소세나 탄소배출권의 거래 등은 녹색산업이 아닌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산업(유의산업)의 재무적 가치나 신용 등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유의산업에 이미 투자를 하였거나 신용공여를 실행한 금융회사의 경우 해당 익스포저에 대한 신용리스크나 시장리스크 등의 증가가 수반될 수 있다.

※ 이행 리스크



* '20.5, Guide for Supervisors - Integrating climate-related and environmental risks into prudential supervision(NGFS)

기후리스크는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보험리스크, 운영리스크 등 기존의 리스크 항목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격이므로, 국제기준은 별도의 리스크 분류로 관리하지 않고 기존의 리스크 체계 내에서 기후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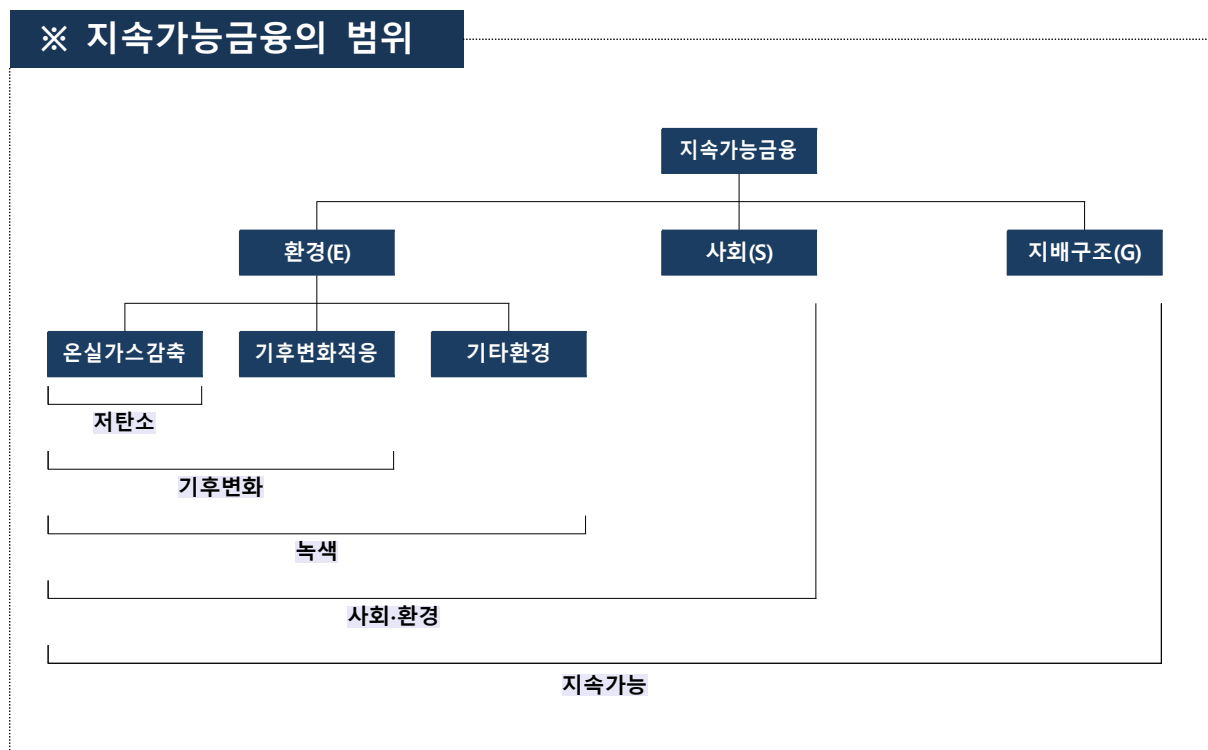
※ 기후리스크 분류

분 류	사 례
신용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불에 의한 생산현장의 파괴는 회사의 재무적 곤궁을 야기할 수 있다. - 새로운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은 담보물 가치의 하락을 야기하여 고객들의 부채 상환을 어렵게 하고 금융회사의 손실이 증가할 수 있다.
운용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심한 기상이변은 금융회사의 중요한 프로세스, 시스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비즈니스 연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금융회사는 기후 관련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고, 그와 관련한 손실을 복구해야 할 수 있다.
시장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심한 기상이변은 투자자산의 변동성 증가를 야기할 수 있으며, 탄소세의 도입은 투자자산의 평가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보험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수와 같은 극심한 기상이변은 과도한 보험금 청구와 보험 관련 인수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유동성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의 기후에 민감한 익스포저에 대한 신뢰할만하고 비교 가능한 정보의 부족은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잠재적으로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 '20.5, Guide for Supervisors - Integrating climate-related and environmental risks into prudential supervision(NGFS)

다만, 기후리스크는 녹색금융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리스크를 모두 대변하지는 못한다. 기후변화 뿐 아니라 기업이 경제주체로서 사업을 영위해 가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 및 이로 인한 생물다양성의 훼손 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기후리스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환경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따라서 최근 화두로 떠오르는 ESG 중 환경(Environmental) 분야를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에의 적응과 함께, 기타 환경적인 요소를 아우르는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 금융연구원, 국내외 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 관련 대응동향 및 감독방안 연구('20.12)

나. 녹색금융의 지원기준 및 지배구조

녹색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기후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녹색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분야가 녹색이고 아닌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국내 기준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최근 EU는 녹색분류체계(Taxonomy)를 발표하였다. EU 녹색분류체계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하고 판별하는 수단으로서, 기업과 투자자가 정확한 분류기준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금융이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가진다. 우리나라도 EU 녹색분류체계를 참고하여 녹색과 비녹색을 구분하는 식별기준인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해당 제도가 정립될 때까지 금융회사는 정부가 2020년 12월에 발표한 뉴딜투자 가이드라인 상 그린뉴딜 항목을 참고하거나 자체적으로 분류기준을 만들어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EU 녹색분류체계는 6대 환경목표에 기후변화 적응과 기후변화 완화를 포함하며, 식별기준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도록 하고 있다. EU는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 가능한 기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내지 그러한 영향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거나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경제활동의 목표로 설명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등 온실가스 배출의 안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경제활동의 목표로 하며,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경제활동은 파리협약의 장기적인 온도상승 제한 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기후변화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9개 분야, 88개 경제활동으로, 기후변화 적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13개 분야, 95개 경제활동으로 구분하여 지속가능 금융의 투자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 EU 녹색분류체계의 환경목표 및 판단조건

6대 환경목표	녹색경제활동 판단기준
❶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 ¹⁾ ❷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²⁾ ❸ 수자원,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호 ❹ 순환경제로의 전환 ❺ 오염 방지 및 관리 ❻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	❶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에 실질적으로 기여 ❷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중대한 무해성 원칙 : DNSH) ❸ 최소한의 안전장치* 준수 <small>* UN기업 및 인권 지침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small> ❹ EU집행위가 설정한 기술심사기준에 부합

1) **(9개 분야)** △임업, △환경 보호 및 복원, △제조업, △에너지,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관리 및 개선, △운송, △ 건설 및 부동산, △정보통신, △전문, 과학 및 기술

2) **(13개 분야)** △임업, △환경 보호 및 복원, △제조업, △에너지,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관리 및 개선, △운송, △ 건설 및 부동산, △정보통신, △전문, 과학 및 기술, △금융 및 보험, △교육, △건강 및 사회사업 활동, △예술, △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레이션

* '21.4, EU Taxonomy Climate Delegated Act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와 환경부가 2021년 12월중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를 공개하여 녹색 경제활동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기본적으로 EU 녹색분류체계를 참고하되,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기준을 보완하였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따르면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나 금융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적합성 평가를 거쳐야 하며, 이 때 활동기준(기업 경제활동의 6대 환경목표에 대한 부합성), 인정기준(온실가스 배출량, 환경관련 인증 보유여부 등 기술적 기준에 대한 부합성), 배제기준(심각한 환경피해 평가기준에 따른 부합성), 보호기준(아동노동, 강제노동 등 물의를 야기하지 않는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부합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녹색분류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주요내용(대표예시 안)

구분	부문	녹색부문			전환부문
	분야	산업	발전 · 에너지	수송	발전 · 에너지
	경제활동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철강 제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대중교통 운영	LNG·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①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생산제품별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가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	별도 인정기준 미적용	별도 인정기준 미적용	온실가스 배출량 320g CO ₂ eq./kWh 이내이며, '30년까지 250g CO ₂ eq./kWh 달성
② 배제기준	기후적응	공통 '배제기준 - 기후변화 적응' 관련 요건 충족			
	물	공통 '배제기준 - 물' 관련 요건 충족 <div>「수도법」 상 위생 안전기준에 부합</div>			
	오염	공통 '배제기준 - 오염' 관련 요건 충족			
	순환경제	공통 '배제기준 - 자원순환' 관련 요건 충족			
	생물다양성	공통 '배제기준 - 생물다양성' 관련 요건 충족			
③ 보호기준	아동노동, 강제노동, 문화재 파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을 것				

* ①인정기준, ②배제기준, ③보호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녹색으로 분류 가능

최근 EU는 녹색분류체계 발표 외에도 2021년 4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6개 위임법률 개정안을 공개하였다. 해당 법률안은 EU의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의 10대 실행계획 중 네 번째 계획(금융자문 제공시 지속가능성 요소 고려)과 일곱 번째 계획(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사 의무에 지속가능성 포함)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6개 위임법률 개정안은 투자 및 보험자문사 등이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고객의 투자 적합성을 평가할 때 고객의 지속가능성 선호도를 고려하고, 금융투자상품을 운용하는 수탁자인 집합투자회사 또는 보험회사 등이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리스크 평가를 충실히 하며,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요소를 고려하도록 한다. 여기서 지속가능성 요소는 EU 지침에 따라 환경, 사회·근로 문제, 인권, 부패·뇌물방지과 관련한 사항으로 폭 넓게 정의된다. 해당 법률안은 EU 이사회 등의 검토를 거쳐 2022년 하반기 중 적용될 예정이며, 국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취급할 때 적용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EU 6개 위임법률 개정안(예시)

구 분	개정안 예시
① 투자적합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2017/565 §2⑦) <u>지속가능성 선호도</u>란, 금융소비자가 다음의 금융상품에 투자할 것인지 여부 및 어느 정도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고객의 선택을 말한다. (a) 금융소비자가 <u>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부분에 최소 일정 비율이 투자</u>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금융상품 ▶ (EU 2017/2359 §9⑥) 보험회사는 투자상품이 <u>금융소비자의 지속가능성 선호도</u>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u>해당 상품을 추천하여서는 안 된다</u>. ▶ (EU 2017/2359 §14④)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자가 <u>투자상품과 관련하여 고객에 대해 자문</u>을 수행하는 경우 고객의 <u>지속가능성 선호도를 고려</u>함에 따라 고객의 투자목적이 달성되는지 여부에 대해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충실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2010/43 §23⑤) <u>자산운용사</u>는 투자운용, 정책수립, 리스크관리 등 의무이행 과정에서 <u>지속가능성 리스크를 고려</u>하여야 한다. ▶ (EU 2010/43 §23⑥) <u>자산운용사의 위험관리정책</u>은 개별 펀드상품의 익스포저에 따른 시장, 유동성, <u>지속가능성</u>, 거래상대방 리스크 및 운영리스크 등을 <u>평가할 수 있어야</u> 한다.
③ 금융투자상품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2017/2358 §5①) <u>보험 관련 금융상품 승인 절차</u>는 목표시장과 고객군을 식별해야 한다. 목표시장은 해당 상품의 ... <u>지속가능성 요소를 포함</u>하여 세분화된 수준에서 충분히 식별되어야 한다. ▶ (EU 2017/2358 §5③) <u>보험상품 설계자</u>는 금융소비자의 <u>지속가능성 관련 목표를 포함</u>하여 ... 보험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하여야 한다. ▶ (EU 2017/593 §9⑭) 투자회사는 목표시장의 잠재적 위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이벤트를 고려하여 <u>투자회사가 설계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u>하여야 한다. 투자회사는 목표시장의 <u>지속가능성 관련 목적을 포함</u>하여야 한다. ▶ (EU 2017/593 §10②) 투자회사는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가 <u>목표시장의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 ... 에 부합하도록</u> 하기 위해 적절한 금융상품 지배구조를 구성하여야 한다.

* EU 6개 위임법률 개정안 일부내용 발췌

한편, 국제기준은 일반적으로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평가 및 목표 등의 순서로 기후리스크 및 해당 기후리스크로 인해 파생되는

기회의 포착과 관련한 내용을 관리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기회의 포착은 기후리스크를 경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효율성 증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시장의 개척,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도입 등을 의미한다. 금융회사는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로 금융을 제공하므로, 금융회사 입장에서 기후리스크에 따른 기회의 포착은 녹색 분야에 대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일련의 활동, 즉 녹색금융 업무와 연관이 있다.

※ TCFD 권고 기후리스크 공개 항목

공개 항목	공개 내용
지배구조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대한 조직의 지배구조
전략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가 그러한 정보가 중요한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 계획에 미치는 실질적 및 잠재적 영향
리스크 관리	조직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방법
지표와 감축목표	해당 정보가 재정적으로 중요한 경우 연관된 기후 변화에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지표와 감축목표

* '17.6,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TCFD)

금융회사는 자체적으로 녹색금융을 추진하기 위한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녹색금융 업무와 기후리스크 관리를 수행하는 조직 내 의사결정 구조와 체계에 관한 내용이다. 이를 위해, 녹색 금융 업무와 기후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및 고위경영진에

설명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경영전략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녹색금융 업무와 기후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이 금융회사의 영업, 전략, 재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해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녹색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기후·환경리스크를 식별,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기후리스크와 관련한 특정 지표(예: 온실가스 배출량, 물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 등)를 설정하여 녹색금융 업무나 기후리스크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다. 자금지원의 관리

국제기준은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지원에 대해 해당 금융지원의 대상이 되는 특정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검토 및 평가하고, 그 정도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금융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2003년부터 전 세계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가입으로 시작된 적도원칙은 잠재적으로 환경리스크를 야기하는 프로젝트 등에 대해 10가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1천만 달러 이상의 금융지원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적도원칙은 2020년 7월에 4번째 개정안이 발표되었으며, 현재 37개국 118개 국내외 금융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 '적도원칙' 10대 원칙

원칙	내용
① 검토 및 등급 분류	프로젝트에 금융지원 요청시 금융회사는 프로젝트의 잠재적 환경·사회 리스크와 영향의 규모에 근거해 등급을 분류
② 환경·사회 평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환경·사회 평가 프로세스를 이행하도록 요구
③ 적용되는 환경·사회 기준	환경·사회 평가 프로세스는 우선적으로 프로젝트 소재국의 환경·사회 이슈 관련 법률, 규정 및 인허가 사항의 준수 여부를 다룸
④ 환경·사회 관리시스템 및 적도원칙 액션플랜	환경·사회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를 요구
⑤ 이해관계자 참여	효과적인 이해관계자 참여를 실시할 것을 요구
⑥ 고충처리 메커니즘	환경·사회적 성과에 대한 우려와 불만사항의 접수 및 해결을 위해 고충처리 메커니즘 구축하도록 요구
⑦ 독립 검토	독립 환경·사회 컨설턴트는 적도원칙 준수 여부의 판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사회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독립 검토를 실시
⑧ 서약	환경·사회와 관련된 소재국의 모든 법률, 규정 및 인허가 사항을 모든 중요 측면에서 준수할 것임을 금융계약서에 서약
⑨ 독립 모니터링 및 보고	금융종결 이후 그리고 대출기간 동안 프로젝트의 적도원칙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독립 모니터링과 보고를 요구
⑩ 정보공개 및 투명성	금융종결 거래와 적도원칙 이행 프로세스 및 경험에 대하여 최소한 연 1회 공개

* '20.7, The Equator Principles

적도원칙은 기후변화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금융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일정 등급을 부여하고 기후리스크를 포함하여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 중 하나인 기후리스크에 대한 평가는 TCFD의 권고안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대출 등 금융지원 실행의 전제 조건으로 독립적인 환경 관련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고 프로젝트에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갈등의 조정 과정을 거치도록 권고하고 있다.

※ '적도원칙' 프로젝트 등급 분류

등 급	내 용
A등급	부정적인 잠재적 환경·사회 위험 및 영향을 중대하게 미치는 프로젝트로서, 해당 위험 및 영향이 다양하거나, 회복불능이거나 또는 전례가 없는 경우
B등급	부정적인 잠재적 환경·사회 위험 및 영향을 제한적으로 미치는 프로젝트로서, 해당 위험 및 영향의 건수가 적고, 범위가 대체로 현장에 국한되며, 대부분 회복 가능하고, 경감방안을 통해 용이하게 대처 가능한 경우
C등급	부정적인 환경·사회 위험 및 영향이 경미하거나 없는 프로젝트

* '20.7, The Equator Principles

적도원칙은 금융지원을 받는 자가 석유 및 가스, 화력 발전, 시멘트 및 석회제조 등 탄소배출 집약도가 높은 산업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우 이와 유사한 산업으로서 에너지 효율이나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산업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대안으로 선택하여 추진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도 기후리스크의 평가항목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받는 자로 하여금 해당 국가에서 적용되는 환경규제 또는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CDP) 등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연 1회 적도원칙의 적용을 받는 금융서비스의 건수를 해당 리스크의 등급별, 금융지원이 적용되는 산업분야별, 지역별 등으로 구분하여 공개하도록 권고한다.

적도원칙은 환경·사회리스크 평가시 필요한 25개의 예시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리스크 평가과정에서 국제금융공사(IFC)의 이행표준(Performance Standards)과 세계은행그룹의 EHS(The General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Guidelines)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회사는 적도원칙이 정하는 사항을 참고하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정 산업분야(유의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지원을 실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지원이나 금융지원의 원인이 되는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관련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 '적도원칙' 환경·사회리스크 25개 평가항목

1. 환경·사회 기초 현황 평가
2. 실행 가능하고 환경·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대안 검토
3. 소재국 법률 및 규정, 그리고 적용 가능한 국제 조약 및 협정(2015 파리 협정 포함)에 따른 요건
4. 생물다양성(교란된 서식지, 자연 및 중요 서식지의 멸종위기종과 민감한 생태계 포함)의 보호와 보전 및 법정보호지역의 식별
5. 재생가능한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사용(적절한 독립 인증시스템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포함)
6. 위험물질의 사용 및 관리
7. 주요 유해성 평가 및 관리
8. 효율적 생산(결과 조정 요인당 총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의 운송 및 사용)
9. 오염 방지 및 폐기물 최소화, 오염통제(유출수 및 대기 배출) 및 폐기물 관리
10. 온실가스 배출 수준 및 배출 집약도
11. 물 사용, 물 이용 집약도 및 수자원
12. 토지 피복, 토지 이용 실행
13. 물리적 기후 리스크 및 적응 기회에 대한 고려, 변화하는 기상패턴 및 기후조건 하에서 프로젝트 운영의 성공 가능성
14. 기존 프로젝트, 지원 대상 프로젝트, 그리고 향후 계획된 프로젝트로 인한 누적 영향
15. 부정적인 실제 또는 잠재적 인권 영향에 대한 고려. 만약 이와 같은 영향이 식별되지 않았다면 인권 위험이 없음을 결정한 방법에 대한 설명(조사과정에서 어떠한 이해관계자 집단과 취약한 인구가 고려되었는지에 대한 내용 포함)
16. 노동 관련 이슈(4개의 핵심노동기준 포함) 및 직업 보건과 안전
17. 프로젝트 설계, 검토 및 이행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집단의 협의 및 참여
18. 사회경제적 영향
19.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그리고 소외 또는 취약 계층에 대한 영향
20. 성별 영향과 불균형적인 성별 영향
21. 토지 취득 및 비자발적 이주
22. 원주민과 그들의 고유한 문화적 제도 및 가치에 미치는 영향(원주민의 전통적 소유 또는 관습적 사용 대상에 해당되는 토지와 자연자원에 대한 영향 포함)
23. 문화재 및 문화유산 보호
24. 지역사회의 보건, 안전 및 보안에 대한 보호(프로젝트의 보안요원 활용에 따른 위험, 영향 및 관리 포함)
25. 화재예방 및 생명안전

* '20.7, The Equator Principles

한편, 국제기준은 기후·환경리스크를 평가할 때 필요한 경우 특정 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후나 환경과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설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기후리스크의 관리 지표 중 하나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로 들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을 위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가이드라인,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를 위한 CDP 등 여러 국제적 논의를 감안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은 금융회사의 자체평가 또는 금융회사가 특정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실행 과정에서 기후·환경리스크 평가에 관한 객관적인 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지원을 제한하거나 관련 규제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관련 규제 또는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제로 측정하고 있는 국내기업은 약 700여개 회사로 한정되어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라. 리스크의 평가와 관리

국제기준은 기후리스크를 적절히 평가하고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리스크의 평가와 관리는 물리적리스크와 이행리스크에 관해 개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물리적리스크의 경우 투자분야별, 투자지역별 기후 민감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이행리스크의 경우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방향이나 규제체계의 변화에 따른 관련 금융자산의 익스포저의 민감도나 반응 정도를 고려할 수 있다. 즉, 관련 규제가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한 익스포저는 민감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해당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게 될 것이다.

국제기준은 일부 금융감독기구가 리스크의 평가·관리 과정에서 기후리스크를 향후 은행이나 보험업계의 내부 자본적정성 규제인 ICAAP((Internal Capital Adequacy Assessment Process,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절차), ORSA(Own Risk and Solvency Assesment,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 규제체계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후변화 및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이 경제·금융부문에 미치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사전에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산업의 자산가치 하락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당국의 기후리스크에 관한 관리·감독계획이 확정되어 시행되는 경우 금융회사의 기후·환경리스크의 관리는 해당 계획이 정하는 지침에 따르고, 이 핸드북은 녹색금융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해당 관리·감독계획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마. 녹색금융 관련 정보의 공개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국제기준은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의 큰 틀에서 금융회사가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권고한다.

※ TCFD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의 핵심요소



지배구조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조직의 지배구조

전략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가 중요한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계획에 미치는 실질적, 잠재적 영향

리스크 관리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식별, 평가,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세스

지표 및 목표

해당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와 감축목표

* '17.6,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TCFD)

금융위원회는 녹색금융 추진체계 발표를 통해 환경리스크 등 환경정보 공시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공시의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까지 1단계 자율공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2단계 일정규모(자산규모 2조원 이상)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 2030년부터 3단계 코스피 상장사 전체에 대해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바. 녹색금융 운영사례의 공유

녹색금융을 실행하기에 준비가 부족한 금융회사는 녹색금융의 출발이 막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핸드북은 현재 국내 금융권의 녹색금융과 관련한 운영사례를 수록하였다(Ⅲ. 녹색금융 운영사례). 경험 부족으로 인해 아직 녹색금융 운영이 미숙한 금융회사의 경우 해당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녹색금융 운영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직접 업무에 활용할 있을 것이다.

운영사례를 공유하는 사례는 국제기준에서도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UN 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가 2011년에 확정된 선언문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금융회사가 녹색금융 운영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다른 금융회사와 상호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선언문 3.5)을 담고 있다.

이 핸드북은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녹색금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후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있어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체계화하여 수록하였다(Ⅱ. 녹색금융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은 앞에서 설명한 녹색금융 추진방향에 관한 내용을 국제기준이 권고하는 사항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II 녹색금융 가이드라인

1. 개괄

1.1 주요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녹색금융 및 환경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제반 업무의 기준과 절차 수립, 국가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 대비 방안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여 금융회사가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조속한 전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2 용어의 해설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1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이를 상쇄하는 온실가스 흡수량을 합하여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영(零)인 상태를 말한다.

1.2.2 “저탄소”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1.2.3 “녹색금융”은 금융회사가 녹색산업 및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업, 자산 등에 투자, 대출 또는 보증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2.4 “녹색성장”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1.2.5 “녹색산업”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1.2.6 “유의산업”은 지구온난화, 고탄소 배출, 생물다양성 훼손 등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민감한 산업으로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산업을 말한다.

1.2.7 “기후리스크”는 기상이변에 따른 물리적 피해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영악화 등이 금융 부문으로 파급될 위험을 말한다.

1.2.8 “환경리스크”는 생물종의 다양성 감소, 대기오염, 지표면의 오염 물질, 기후변화 등과 같은 환경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영악화 등이 금융부문으로 파급될 위험으로 기후리스크를 포함한다.

1.3 적용 대상 및 시기

1.3.1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른 금융회사 및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단,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금융지주회사 및 지배구조법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재산에 대한 신탁업무 및 그 부대업무만을 영위하는 조건으로 신탁업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3.2 금융회사의 기후·환경리스크 관리 및 평가에 대하여는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별도의 기후·환경리스크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지침이 시행되는 때까지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3.3 1.3.1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규모,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1.4 금융회사의 역할과 책임

1.4.1 금융회사는 녹색산업 및 녹색성장 관련 금융지원에 관한 원칙을 수립·준수하는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4.2 금융회사는 저탄소 사회로의 조속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리스크 관리계획을 수립·실행할 수 있다.

2. 금융회사의 녹색금융 추진체계

2.1 이사회와 권한 및 책임

2.1.1 금융회사는 녹색금융 업무 및 환경리스크 관리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수립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평가·점검할 수 있다.

- 2.1.1A 녹색금융과 관련한 지원 정책
- 2.1.1B 녹색금융, 녹색산업, 녹색성장과 관련한 기준
- 2.1.1C 유의산업 관련 기준 및 익스포저 한도의 설정
- 2.1.1D 환경리스크 관리계획 및 기준
- 2.1.2 금융회사는 녹색금융 업무 및 환경리스크 관리 등 주요 사항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 2.1.3 녹색금융 업무 및 환경리스크 관리 등을 담당하는 의사결정기구(위원회 등)를 활용할 수 있다.

2.2 담당부서

금융회사는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녹색금융 업무 및 환경리스크 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각 업무별로 서로 다른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3. 녹색금융의 실행과 관리

3.1 녹색금융의 원칙

금융회사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역할 수행을 위해, 금융자원이 녹색산업 및 녹색성장과 관련된 분야에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원칙을 수립하고 준수할 수 있다.

3.2 녹색금융 대상

- 3.2.1 금융회사는 별표 1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녹색금융

대상을 정할 수 있다. 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녹색분류체계 제도를 시행하는 시기와 범위 등에 맞추어 해당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녹색산업 및 녹색성장 관련 기업, 자산,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3.2.2 금융회사는 녹색금융 대상을 정하기 위한 기준을 내규화하는 등 녹색산업 및 녹색성장 관련 분류기준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다.

3.3 녹색금융의 방법

3.3.1 금융회사는 녹색금융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3.3.1A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해당 법인에 신규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

3.3.1B 특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출자지분 또는 권리의 취득

3.3.1C 채권의 매입, 대출, 보증

3.3.1D 위에 제시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녹색산업과 녹색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3.3.2 금융회사는 녹색산업 분야 투자 및 지원에 소요되는 자금 및 관련 비용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녹색금융 관련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3.4 녹색금융의 심사 및 절차

3.4.1 금융회사는 녹색금융과 관련한 심사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3.4.2 금융회사는 녹색산업 관련 기업의 신용위험 등을 평가하기 위해 여신심사시스템 모형 등 내부적으로 마련한 심사 절차 또는 내부 신용평가정보를 활용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의 신용평가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3.5 녹색금융의 실적 관리

금융회사는 보유한 자산 또는 수행하는 거래 중 녹색금융 및 이와 관련한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비중, 목표금액 및 실적 등에 대한 자율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3.6 금융상품의 설계 및 취급

3.6.1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을 설계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금융상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3.6.2 금융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각 호의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를 하는 경우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환경과 관련한 일반 금융소비자의 성향 등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3.6.3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않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환경과 관련한 일반 금융소비자의 성향 등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3.6.4 금융회사는 3.6.2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않을 수 있다.

3.6.5 금융회사는 3.6.1부터 3.6.4까지가 적용되는 금융상품의 범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및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4. 유의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의 관리

4.1 유의산업의 관리

4.1.1 금융회사는 유의산업 분야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유의산업 분야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4.1.1A 금융회사는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중대한 영역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배제 또는 조건부 금융지원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1.1B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환경에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시 부정적 영향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약에 반영할 수 있다.

4.1.2 금융회사는 유의산업 관련 익스포저 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동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산업 대상에 따른 금융서비스 금액 등을 통제하는 정책과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4.2 특정 거래에 대한 검토절차의 수행

4.2.1 금융회사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지원에 대해서 해당 거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토절차를 수립하여 이행할 수 있다.

4.2.2 금융회사는 특정 거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아래의 절차를 통해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4.2.2A 사전검토 : 거래의 유형, 목적, 지역 등 사업내용을 파악한다.

4.2.2B 등급분류 :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적 영향 및 위험수준에 따라 등급을 분류한다. (예시: A, B, C 또는 1, 2, 3 등의 등급 분류)

4.2.2C 환경영향평가 : 등급 분류된 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인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점검의견을 작성하며, 위험요인에 대한 경감대책이나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금융계약에 반영한다.

4.2.2D 사후관리 : 금융서비스 제공 이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 받은 기업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경감대책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특이사항을 관리한다.

5. 온실가스 배출량의 관리

5.1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

5.1.1 금융회사는 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및 자산포트폴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로 이원화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다.

5.1.2 자산포트폴리오의 범위는 해당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또는 추정이 가능한 자산으로 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포트폴리오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 또는 추정한 자산의 종류에 대한 기준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5.2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 및 감축목표 설정

5.2.1 금융회사는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방식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기한을 정하여 감축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5.2.2 금융회사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목표 수립 시 기한 내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중간단계 목표 설정 및 관리 방안이 포함되도록 할 수 있다.

6. 리스크 관리 및 평가

6.1 리스크 관리체계

6.1.1 금융회사는 리스크 관리규정 및 관리체계를 통하여 환경 리스크를 평가·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존의 리스크 관리규정 및 관리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6.1.2 금융회사는 기후리스크를 기상이변에 따른 직접 또는 간접적인 물리적 피해가 대출, 투자, 보험계약 등의 거래 관계를 통해 금융부문에 파급되는 리스크인 물리적리스크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영악화 등이 금융부문에 파급되는 리스크인 이행리스크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6.2 리스크의 평가 및 점검

6.2.1 금융회사는 녹색금융 업무의 처리실태, 내부통제장치의 작동 여부 및 환경리스크의 현황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할 수 있다.

6.2.2 평가 및 점검의 주기는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7. 공개 등

7.1 공개

7.1.1 금융회사는 공개의 주기 및 방식을 정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7.1.1A 녹색금융과 관련한 이행 계획, 환경지표의 관리 및 목표 등 녹색금융과 관련한 경영전략

7.1.1B 유의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배제 또는 조건부 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7.1.1C 온실가스 배출량의 관리계획 및 측정 결과에 관한 사항

7.1.1D 녹색금융 및 환경리스크와 관련한 리스크 관리체계

- 7.1.2 금융회사는 위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별표 2를 참고하여 공개할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 7.1.3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에 대한 공시 제도가 확정될 때까지는 자율적으로 이행하고, 공시 제도가 확정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7.1.4 금융회사는 위에서 정한 사항을 공개하는 경우에 있어 대외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투명성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7.2 면책

- 7.2.1 금융회사는 녹색금융 업무 및 환경리스크 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임직원을 제재하지 않는다.
 - 7.2.1A 금융관련법규 또는 내규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 7.2.1B 금품 또는 이익의 제공·약속 등의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경우
 - 7.2.1C 대주주·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금융거래의 대상과 한도를 제한하는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7.2.2 금융회사 임직원이 녹색금융 업무 및 환경리스크 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금융관련법규 또는 내규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7.2.2A 임직원과 해당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7.2.2B 해당 업무와 관련된 법규 및 내규에 정해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것

[별표 1] 녹색금융 대상[예시]

본 녹색금융 대상은 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가 마련한 뉴딜투자 공동 기준 중 '그린뉴딜' 관련 품목(85개)을 예시로 제시한 것으로, 금융회사는 **동 예시**를 참고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탄소집약도, CO2 저감장치 등 **녹색성장 관련 기준**을 고려하여 **녹색금융 대상**을 정할 수 있다. 단, 뉴딜투자 공동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 4개 정부부처 및 11개 정책금융기관이 모여 만든 협의회('19.3.15.)로서 혁신성장 관련 정책자금 운용 및 지원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테 마 명	분 야 명	품 목 명
첨단제조 · 자동화	신제조공정	• 3D머신비전, 3D프린팅,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지능형기계, 4D프린팅, 지능형 4D스캐닝 등
	로봇	• 미래형 제조로봇, 스웜로보틱스 등
	차세대 동력장치	• 첨단철도, 전기차/하이브리드, 스텔링 엔진, 스마트카, 전기차/하이브리드 인프라/서비스, 고효율/친환경 선박, 스마트모빌리티, 수소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인프라/서비스 등
화학 · 신소재	바이오소재	• 생물유래소재 등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 태양전지(3세대), 태양광발전(건물일체형포함), 바이오매스에너지(해양,농산,산림포함), 지열발전, 해양에너지(발전기술 및 해양자원개발), 도심형풍력발전,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대형풍력발전시스템, 수열발전, 수소에너지(생산·운송·저장시설 포함) 등
	친환경발전	• 연료전지, 초임계CO2발전시스템, 에너지하베스팅, 가스터빈 발전플랜트 등
	에너지저장	• 정압식압축공기저장,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저장클라우드, 에너지가스변환, 리튬이온배터리, 양성자전지, 슈퍼커패시터, 냉온열에너지저장, 바이오배터리, 배터리에너지관리체계, 레독스흐름전지 등

	에너지효율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용에너지관리, 제로에너지빌딩 / 친환경에너지타운, 폐열회수, 독립형해수담수화, 지능형공조시스템, 분산에너지시스템, 스마트그리드, 가상발전소 등
환경 · 지속가능	스마트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용미생물, 생물비료, 곤충사육, 스마트종자 개발·육종 등
	환경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삼투, 바이오필름수처리, 친환경공조시스템, 기름유출방제, 대기오염관리, 이산화탄소 포집/저장/배출원관리, 토양정화, 원전플랜트 해체, 통합환경관리서비스, 자원효율관리서비스, 친환경 패키징, 유니소재화 제품 등
	환경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폐기물 업사이클링,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방사성폐기물처리, 폐자원에너지, 막여과폐수처리(하폐수처리수재사용, 수생태계복원), 소음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도시광산, 재제조, 신재생발전시스템 재자원화 등
건강 · 진단	친환경소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전자화장품 등
	차세대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량신약, 혁신신약 등
정보통신	실감형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홈 등
전기 · 전자	차세대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력반도체소자 등
	능동형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OLED(LED)조명, 스마트조명 등
센서측정	객체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접촉모니터링 등

[별표 2] TCFD 권고안 공개항목

TCFD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에 관한 TF(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를 말한다. TCFD는 금융회사 및 산업계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아래 11개 정보공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권고안	11개 정보공개 항목
지배구조	1. 기후변화 관련 위험·기회에 대한 이사회 감독 설명
	2. 기후변화 관련 위험·기회에 대한 경영진의 역할 설명
전략	3. 조직의 단/중/장기 기후변화 위험·기회요인 설명
	4. 기후변화 관련 사업·전략·재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 설명
	5. 2°C 이하의 시나리오 포함 다양한 시나리오 전략 고려한 조직의 회복탄력성 설명
리스크관리	6.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 식별·평가 프로세스 설명
	7.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 식별·평가 조직의 프로세스
	8.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 식별·평가 조직 위험 관리 통합 방식
지표 및 목표	9. 조직의 전략,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사용된 지표
	10. 온실가스 배출량 및 관련 위험 공개
	11. 목표 대비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

III 녹색금융 운영사례

1 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가. 지배구조

- 기후변화 관련 전략 등을 심의 · 의결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인 ‘ESG 전략위원회’ 및 ‘위험관리위원회’ 설치
- 기후변화 관련 전략사항을 추진하고 모니터링하는 ‘ESG추진위원회’ 설치

※ 신한그룹 지배구조



* '19년 금융사 최초로 전 그룹사에 전략과 지속가능담당임원인 CSSO(Chief Strategy & Sustainability Officer)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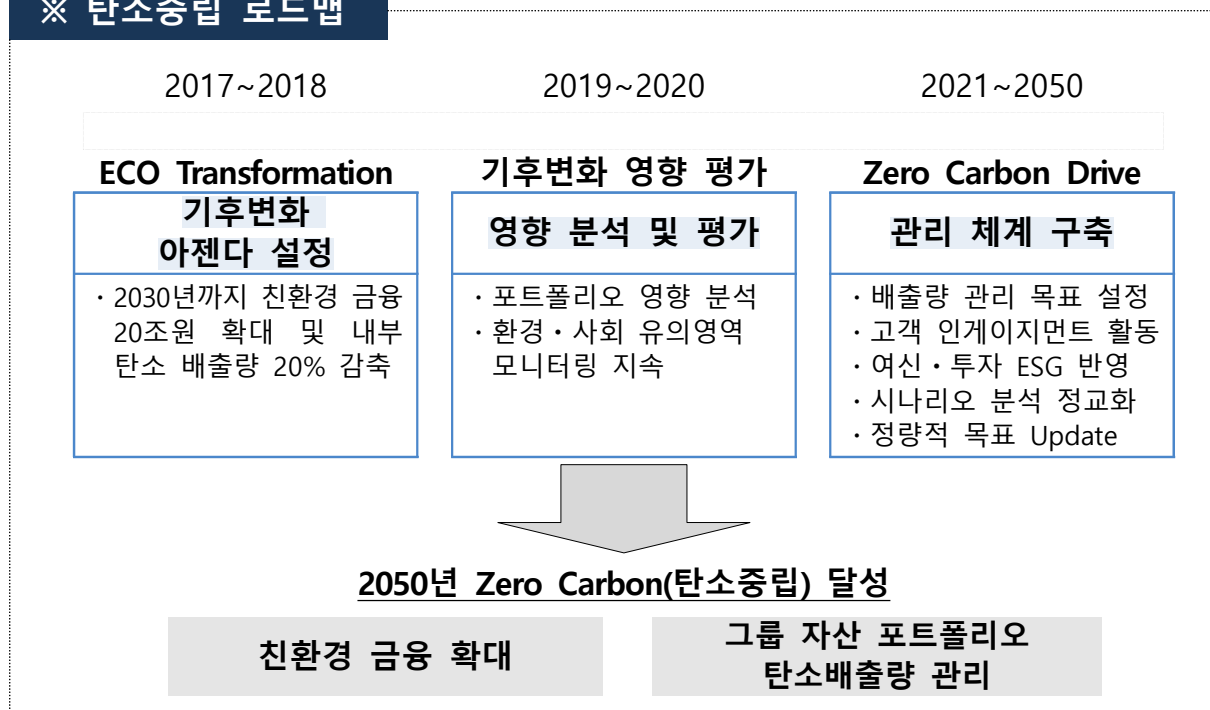
나. 경영전략

□ 금융자산 탄소중립 전략 「Zero Carbon Drive」

- '18년 국내 금융사 최초 'ECO Transformation 20·20' 전략 선언
 - '30년까지 자체 탄소배출량 20%감축 및 20조원 금융지원 목표
- 이후 국제적인 탄소중립(Carbon Neutral) 정책에 발맞추어 'Zero Carbon Drive' 전략 선언
 - 고탄소 배출기업 및 산업에 대한 대출·투자를 관리할 뿐 아니라, 산업 내 친환경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저탄소 경제 전환에 기여
 - SBTi* 방법론을 활용해 그룹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 배출량 '30년 38%, '40년 69%까지 감축 (그룹 자체배출량 각 46%, 88%)

*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 탄소중립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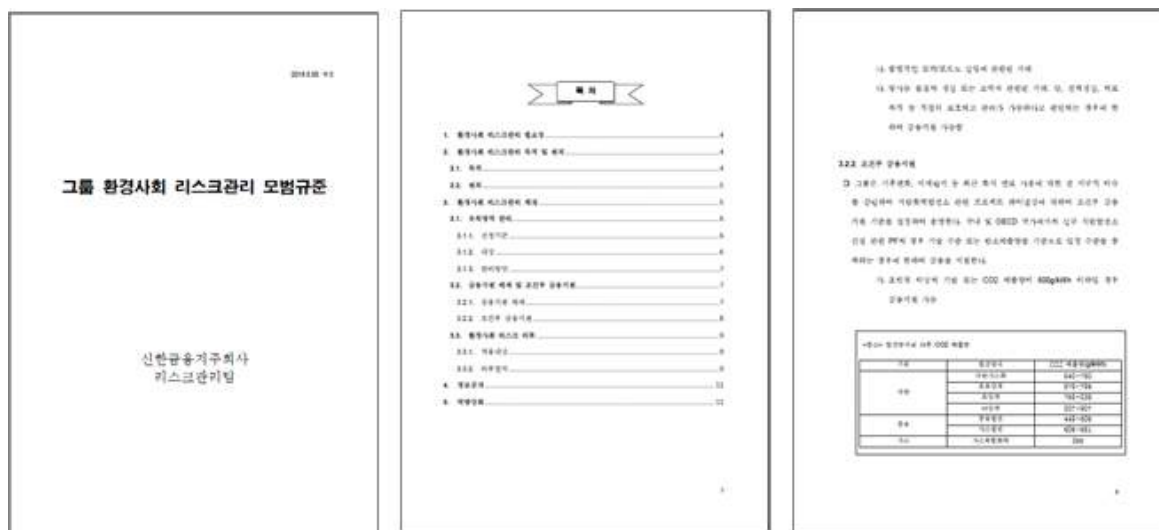
다. 리스크관리 (기후리스크)

□ '18년 국내 금융그룹 최초 「환경·사회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정

-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상 환경·사회 리뷰를 실시하고, 리뷰 체크리스트를 통해 영향을 파악하며 5단계 운영절차로 관리

※ 모범규준 운영

- 환경/사회 리스크관리의 목적, 원칙, 주요 업무 및 R&R 등을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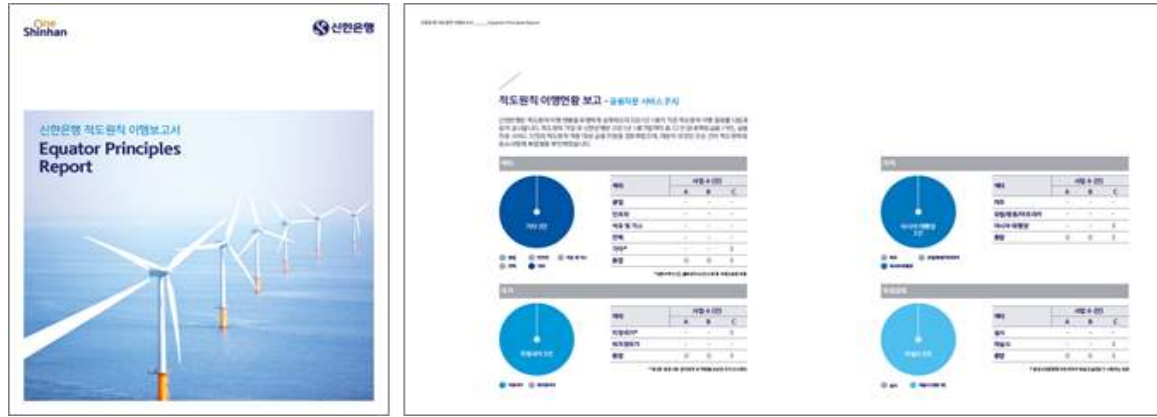


- 환경·사회 리뷰를 통해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시 경감방안을 금융계약에 반영 및 사후 모니터링 실시



- '20년 9월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 가입

※ 적도원칙 이행보고서 발간 ('21.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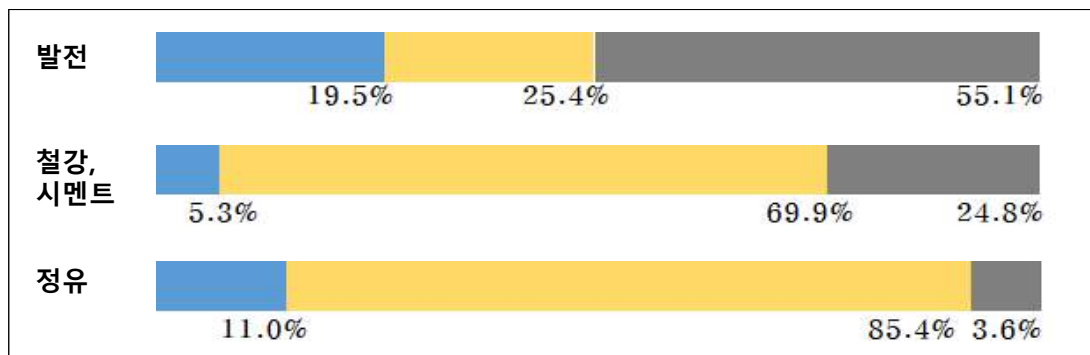


-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식별 및 관리를 위해 그룹사별 포트폴리오의 탄소배출량, 탄소집약도, 고탄소 배출섹터·업체 배출량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 사례

- (주제) 기후 변화에 따른 그룹리스크 시나리오 분석
- (대상) '19년 기준 그룹 자산포트폴리오내 고탄소 배출업종 대상
- (내용) 미래 탄소가격 상승(예: 탄소세 부과 등)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액
- (결과) 추가비용부담은 '30년까지 1.16조원 수준이며, 특히 발전 업종의 경우 약 55.1%의 고객이 마이너스 마진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분석됨

- 추가 탄소비용이 마진 대비 10% 이내
- 추가 탄소비용이 마진 대비 10% 초과
- 추가 탄소비용에 따라 마진의 마이너스로 전환



□ 환경 · 사회 측면의 유의영역* 모니터링 : 해당영역 익스포저 관리

* 12개 유의영역 산업: ⁽¹⁾광업(중금속 수질오염), ⁽²⁾담배(아동노동 · 보건), ⁽³⁾유망어업(해양 생태계 파괴), ⁽⁴⁾인프라(대기오염 · 토착민이주), ⁽⁵⁾무기 · 군수(대량살상), ⁽⁶⁾발전(대기오염 · 방사능), ⁽⁷⁾임업(수질오염 · 생태계파괴), ⁽⁸⁾작물생산(토양 · 수질오염), ⁽⁹⁾석유정제(해양오염), ⁽¹⁰⁾석탄가공(대기오염), ⁽¹¹⁾폐수 및 폐기물처리(수질오염), ⁽¹²⁾화학물질 제조(유해물질)

라. 관리지표 및 목표치 설정

□ 탄소배출량(tCO₂eq) 및 탄소집약도(tCO₂eq/금융지원 1억원)를 주요 관리지표로 설정하여, '30년, '40년, '50년 단위 감축목표 설정

○ '19년 대비 '30년 38.6%, '40년 60.6%, '50년 Net-Zero 달성

○ 친환경 금융의 경우 '30년까지 누적 총 30조원을 목표로 설정

※ 녹색금융 추진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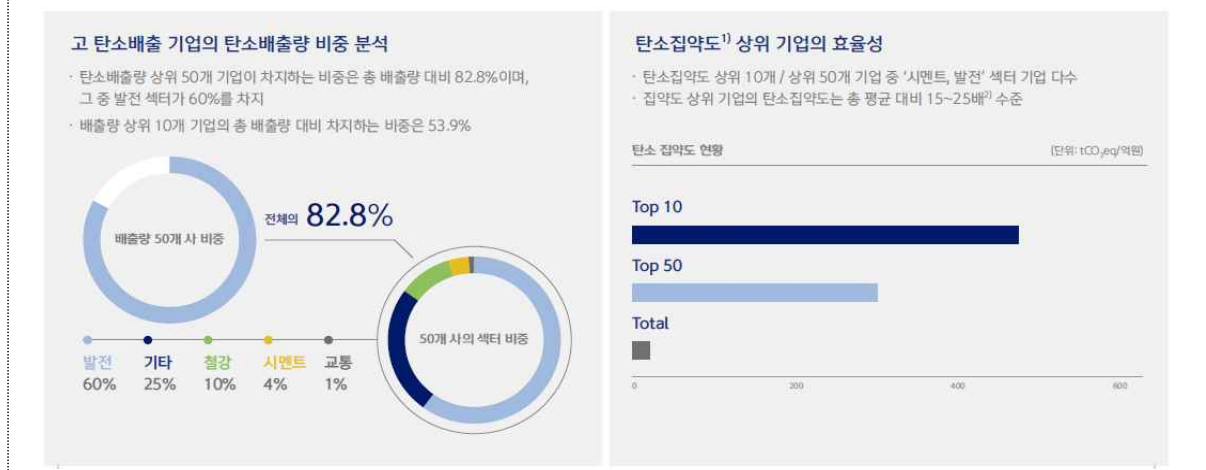


* 상쇄목표는 태양광 · 풍력 기반 재생에너지 PF비중이며, 감축 노력 없이 탄소배출량을 상쇄 가능한 수준으로 추정

마. 관리방안 공개

- 탄소배출량 및 탄소집약도 상위기업 및 주요 섹터에 대하여 집중 관리 및 친환경 경영 전환 기회 발굴

※ 고 탄소배출 기업 및 탄소집약도 상위기업 분석



바. 탄소지수 등 ESG 정보의 정기 공시

- 분기별 실적발표에서 '경영실적 현황' 자료 공개

※ 신한금융지주 경영실적 현황 ('21.1분기)



가. 친환경 지속가능금융 확대

□ ESG 금융상품 목표 수립

- (KB GREEN WAVE 2030) 2030년까지 친환경 금융상품을 포함한 ESG 상품·투자·대출 50조원 달성 목표 수립(그룹)
- (은행 현황) ESG/친환경 금융 실적('20년): 18.8조원/6조원

□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친환경 투자 확대 및 녹색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 대출 상품 출시

- (한국판 뉴딜 사업 대응) ESG 관련도가 높은 「그린뉴딜」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 10대 대표과제 중 5개 과제를 중점 지원 영역*으로 선정하여 '25년까지 10조원 투자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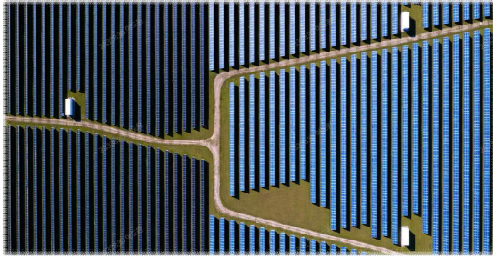
* 민간 투자 규모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주력 섹터 선정

※ 한국판 뉴딜 사업 대응



※ 친환경 투자·대출 주요 현황

투 자



미국 캘리포니아 태양광 발전사업

- √ 당행 대출규모: 70백만USD
- √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부문 최초 주선
- √ 캘리포니아주 태양광발전소(346MWh) 및 에너지 저장시설(1,493MWh) 건설



해남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사업

- √ 당행 대출규모: 1,040억원
- √ 국내 최대 규모인 태양광발전소 (98MWh) 및 에너지 저장장치 (306MWh) 설비 구축



양산 원동 풍력 발전사업

- √ 당행 대출규모: 320억원
- √ 풍부한 풍속(평균 6.8m/s)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 생산 및 공급

대 출

상품명	상품 개요
KB Green Wave ESG 우수기업 대출	KB가 선정한 ESG 평가기준 충족 시 금리·한도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신규 이후 여신거래 시 해당 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에는 '우대혜택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하는 상품
KB Green Growth Loan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친환경보존 및 녹색 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금융을 지원하는 녹색금융 상품 - 녹색성장기업에 필요한 여신 및 금리 우대
KB 태양광발전 우대대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성장에 필요한 금융을 지원하는 녹색금융 상품 -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대출 한도 지원 및 금리 우대

□ 미세먼지, 해양오염 등의 환경문제 대비 친환경 상품 개발

- 상품판매와 연계한 기부금을 조성해 친환경 사회공헌사업 시행

※ 친환경 금융상품 개발



KB맑은하늘 금융상품

- ✓ 깨끗한 하늘을 위한 KB맑은하늘 금융상품 (적금/공익신탁) 출시('19년)
- ✓ 친환경 실천시 우대금리 제공 및 신탁보수 기부 (종이통장 미발행, 대중교통미션 등)
- ⇒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복지시설 친환경 보일러 교체



KB맑은바다 금융상품

- ✓ 깨끗한 바다를 위한 KB맑은바다 금융상품(적금/공익신탁) 출시('20년)
- ✓ 친환경 실천시 우대금리 제공 및 신탁보수 기부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 종이통장 미발행 등)
- ⇒ 해양쓰레기 클린업 활동, 제주도 양식장 정화 활동



KB Green Wave 1.5°C 금융상품

- ✓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C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탄소배출 감축에 동참하는 KB Green Wave 1.5°C 금융상품 (정기예금/공익신탁/카드) 출시('21년)
- ✓ 친환경 실천시 우대이율/포인트리 제공 및 신탁보수 기부(KB 친환경 특화상품 보유, 친환경 모빌리티 이용 등)
- ⇒ 미세먼지 저감 학교·도시숲 조성,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 예정

□ 친환경 사업 지원을 위한 녹색채권 발행

- 지속가능금융 관리체계(Sustainability Framework) 구축
- 환경부와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21.2)
- 환경부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절차 및 기준을 준수한 1천억원 규모의 녹색채권 발행*('21.3)

* 태양광 발전 및 풍력 발전 등 국내 저탄소 녹색사업 지원


□ 탄소배출 감축 활동을 통한 지속가능한 금융 기반 마련

- (탈석탄 금융 선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위기의 선결 과제인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위해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채권인수에 대한 사업 참여 전면 중단(국내 금융그룹 최초, '20.9)
- (KB Green Wave 必환경 캠페인) 고객, 사회,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캠페인으로 탄소중립 실천 활동 확산 추진('20.6)

※ 친환경 캠페인


함께 그린 내일

미래 세대를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必환경 캠페인




Less Paper

- 종이통장 줄이기
- 복사용지 줄이기
- DM 줄이기



Save Energy

- 에너지 줄이기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 신재생에너지 사용



No Plastic

- 친환경물품 구매
- 일회용품 줄이기
- 친환경상품 출시

나.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 투자·대출 프로세스 내 ESG 리스크를 고려하여 신용평가 등 여신프로세스 실행

○ (고객 사전안내) ESG 관련 사항에 따라 신용등급 또는 여신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을 고객에게 사전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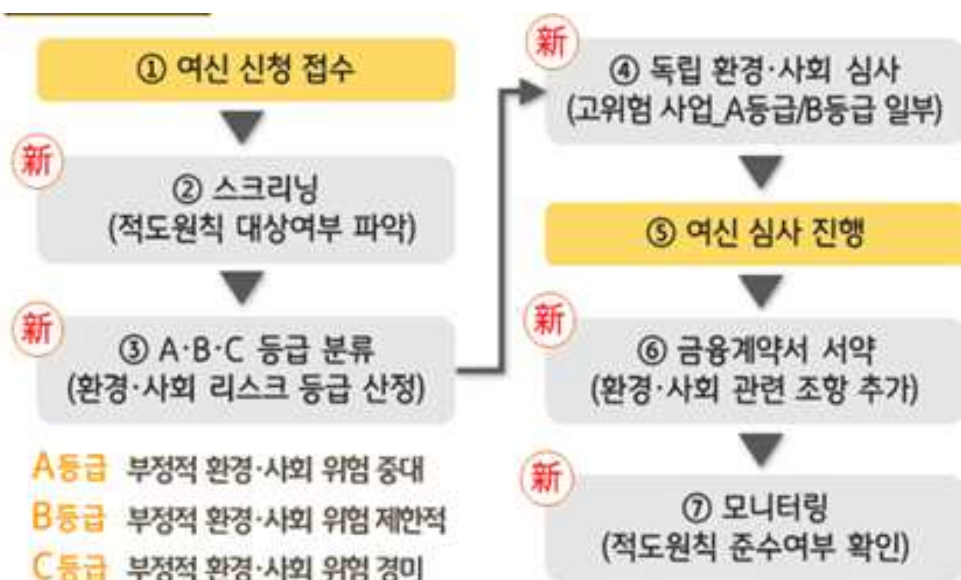
○ (ESG 요소 신용등급 반영) 여신업무지침 내 신용등급 조정 사유에 ESG 실천 정도를 반영하여 운영*

*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경영, 윤리경영 실천 정도에 따라 신용등급 상향 및 하향

○ (ESG 체크리스트 점검) 국내 부동산 PF 또는 SOC 여신 중 여신신청금액 300억원 이상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ESG 체크리스트'를 점검하여 의사결정에 반영

○ (적도원칙 적용) 적도원칙 대상사업과 비대상사업을 구분한 심사절차 개선 및 대상사업에 대한 세부 심사 매뉴얼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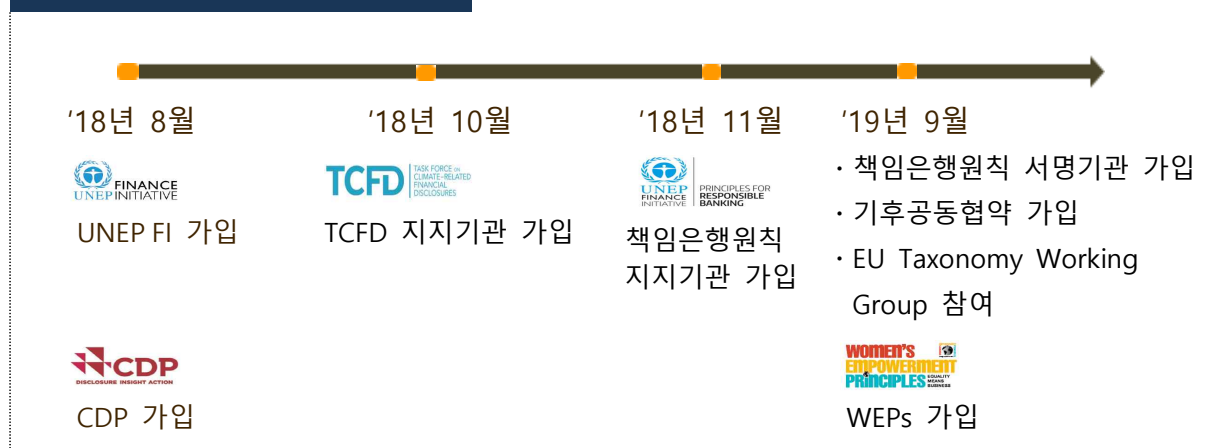
※ 적도원칙 적용 절차



다.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확대

□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선제적 참여를 통한 환경 리더십 강화

※ ESG 이니셔티브 활동



* '21년 SBTi(과학적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PCAF(탄소회계금융협회), NZBA(넷 제로 은행연합) 가입 완료

□ ESG 이행노력에 대한 외부평가 수행으로 ESG 역량강화 노력 지속

※ ESG 평가 대응

ESG 평가	주요 성과
DJSI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	· 5년 연속 월드시수 편입
CDP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 Leadership A- · 4년 연속 금융 섹터 아너스 선정
GEI (블룸버그양성평등지수)	· 국내 기업 최초 3년 연속 편입(2019~2021년)
KCGS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국내 금융회사 중 유일하게 전 부문 A+ 획득 통합등급 A+(지배구조 A+, 환경 A+, 사회 A+) · 기업지배구조 최우수기업 금융기관 1위 2년 연속 선정 ('18~'19년)

가. 지속가능경영 체계

- ☐ ‘이해관계자 간의 장기적인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는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의 의지를 정관 서문에 명시
- ☐ ‘11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 및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지수 생명보험부문 1위’ 다수 선정
- ☐ ‘교보인의 직무윤리헌장’을 제정하고, 매년 임직원 ‘교보인의 직무윤리 실천 다짐’ 서약을 통해 직무윤리 실천문화 공고화

나.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 ☐ ‘10년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지 표명 및 UNGC가 제시한 10대 원칙에 대한 실천 내용을 매년 보고
- ☐ UN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중 6개 목표를 우선 선정하여 이에 대한 실천 노력과 성과를 매년 보고
- ☐ CDP(탄소정보공개) 서명기관 가입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환경 정보 공개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노력에 동참

다. 사회책임투자 실천

□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ESG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10년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투자비중 확대

○ 민간 보험사 중 신재생에너지 누적 투자액이 가장 많으며, 특히 석탄금융 대비 신재생에너지 투자금액은 2.23배 수준

※ 국내 신재생에너지 투자현황

(단위 : 억원)

순 위	기관명	신재생에너지 투자액	석탄금융 대비 투자규모
1	교보생명	34,488	2.23배
2	○○생명	19,705	1.68배
3	△△생명	13,433	0.18배
4	◇◇생명	9,332	0.34배
5	☆☆손보	8,033	0.14배

* 2020 한국 석탄금융백서

□ ①Negative 스크리닝, ②Positive 스크리닝, ③ESG 통합전략의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사회책임투자 실시

○ Negative 스크리닝의 일환으로 ‘21.5월 탈석탄 금융 선언

※ 사회책임투자 프로세스

프로세스	Negative 스크리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책임투자 가이드라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악기업 정의 및 범위를 구체화하여 해당기업 투자제한 ☞ 담배, 비인도적 무기 ※ '21.5월 탈석탄 금융 선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❶ 향후 신규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에 참여하지 않는다. ❷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회사 (SPC)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하지 않는다. ❸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는 다른 어떠한 채권도 인수하지 않는다. ❹ 신재생에너지 등 ESG 요소를 고려한 친환경 관련 투자는 확대한다. </div>
	Positive 스크리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ESG주식/채권 투자 확대 • 대체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친환경 에너지 및 SOC투자 지속 확대 • 변액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ESG펀드 운용
	ESG 통합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스코어링을 통한 ESG 영향 점검방식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체 ESG체크리스트를 도입하여 투자 대상에 대한 ESG 부문등급 및 종합등급 부여 예정 ⇒ ESG 영향도를 가늠하고 효과적인 ESG투자를 지원 • ESG 통합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프로세스, 운용, 심사 등 자산운용 프로세스 전반에 ESG요소 반영

라. ESG 체크리스트 활용 계획

□ ESG투자에 대응하여 구체적인 ESG 평가기준 마련을 통해 효과적인 ESG투자 지원 예정 ⇒ 내부기준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 노력

□ 활용계획(안)

○ 국내기업·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상으로 Scoring 방식의 ESG평가 기준(체크리스트) 도입

○ 체크리스트 구성

- Screening : 해악업종·기업인지, 환경관련 부정적 업종에 해당 하는지 여부 확인

- ESG 평가항목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기업	PF
환경규제	노동환경	주주권	투자구조
자원사용	공정거래	이사회	현금흐름
오염물질 배출	공정경쟁	감사기구	투자자 권리
환경 혁신	지역사회 이익	정보 투명성	정보 투명성

○ 기업 신용평가 및 투자자산 심사에 ESG 영향도를 가늠하는 ‘참고지표’로 활용

○ ESG 체크리스트 평가 항목 및 세부기준을 지속 개선 후 본격 활용 예정

□ ESG를 미래 지속성장의 동력으로 인식,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

○ 이사회 내부 ESG 위원회* 설치 ('21.3월)

* ESG 관련 최고 의사결정체계 수립

○ 탈석탄 의사 결정*을 통한 이해관계자 신뢰 제고

* 탈석탄 원칙 선언('20.11) : 투자자로서의 지분·채권 투자는 물론, 신규 건설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보험 인수와 관련하여 탈석탄 원칙을 도입

○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ISO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 인증 동시 취득*

* 보유 사옥에 관련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중장기 탄소중립 계획** 수립

* '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 대비 17.8% 감축(15,153tCO₂eq)

** 중장기 배출량 목표 수립('30년까지 '17년 대비 50% 감축)

□ 보험 및 투자 영역과 ESG의 통합 (녹색금융 추진)

○ 친환경 보험상품 및 서비스* 매출 확대: '20년 기준 2.3조원

* (1)일반·장기보험 :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날씨보험 등
(2)자동차보험 : ECO마일리지 특약, 요일제 자동차보험 특약 등

○ 종이 없는 보험계약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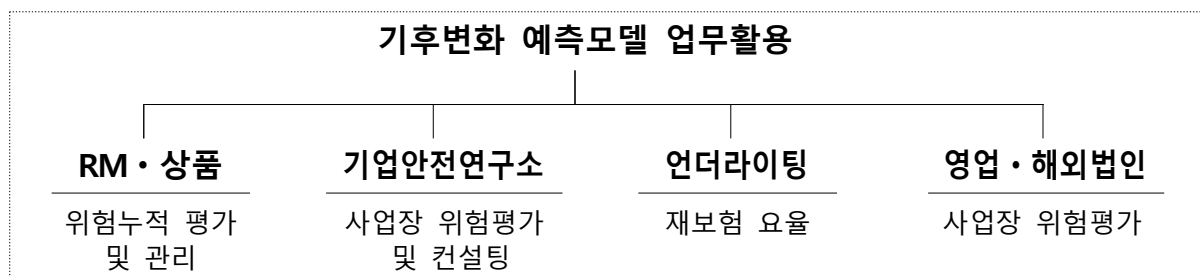
* 모바일 영업시스템(M Portal)을 통한 친환경 보험계약 증가('20년 기준 장기 보험 신계약 중 모바일 전자서명 비율 94.8%)

○ ESG투자 확대 : '20년 3.5조원* → '30년까지 10.5조원 목표

* 친환경 관련 기업금융투자(2.3조원), 공기업·일반기업 발행 ESG채권 투자(1.2조원)

○ 보험의 본질인 「위험관리」 측면 ESG 경쟁력 보유

- 기업안전연구소 : 기업고객 대상 ESG 안전경영 지원 및 기후 변화 예측모델을 통한 손해율 개선 및 수익성 제고



※ 날씨 경영 (Business Case)

삼성화재는 손해보험업의 특성상 악천후 등과 같은 날씨에 따라 위험과 손실 규모가 달라지므로 날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활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관련 정보를 활용한 사고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태풍, 폭설 등 기상 특보 시에 차량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제안하는 대고객 문자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날씨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인명과 재산손실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 '21년 통합보고서 내용

- 교통안전문화연구소 : 교통안전 정책개발 및 안전교육

* '안전속도 5030'프로젝트, 도로 외 구역 안전관리 개선 활동 등

○ ESG 관점의 「투자 및 보험인수(언더라이팅)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 투자 가이드라인 : 자산운용시 사회적 책임투자 요소 고려*

* 석탄 발전/채굴 및 기타 사회적 책임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 및 사업에 대한 투·융자의 원칙적 제한

– 일반보험 언더라이팅 가이드라인 : ESG 리스크 평가항목* 신설

- * 환경(E) : 기후 및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이 있는지 여부
 사회(S) : 인간의 기본권 침해 여부
 지배구조(G) : 반경쟁, 비윤리적인 기업 행위 여부

□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및 외부 평가 수행

○ 국내외 지속가능경영 이니셔티브 참여

- ① UNEP FI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 : '10년 가입
- ② PSI (지속가능보험원칙) : '15.1월 국내 보험사 최초 가입
- ③ CDP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 '10년 가입
- ④ TCFD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 '21.7월 가입

○ ESG경영 역량을 통한 우수한 ESG 평가결과 보유

※ ESG 평가 대응

ESG 평가	주요 성과
DJSI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	· 7년 연속 월드지수 편입 (2년 연속, 국내 보험사 유일)
CDP Climate Change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 Leadership A- · 금융 부문 우수기업(섹터 아너스) 선정
MSCI ESG Ratings (모건스탠리)	· 종합 A등급 획득
KCGS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ESG 통합등급 A

□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을 대상으로 ESG 리포트를 발간하여 ESG 요소를 기업 분석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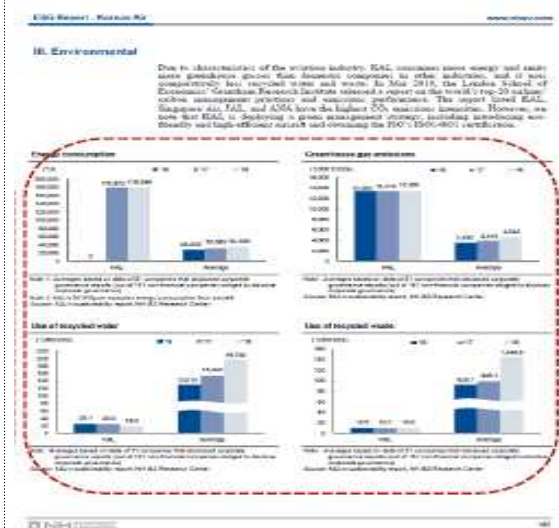
○ 모든 기업분석 자료에 ESG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투자자를 대상으로 ESG 관련 정보 제공

○ 비교 대상기업(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 161개사) 평균과 비교·분석 실시

○ ESG 이슈, ESG 채권, ESG 펀드 관련 비정기적인 심층리포트 지속 발간 중

- 辛丑年 대세는 ESG, 알아두면 쓸모있는 ESG 이슈 13가지
- 펀드도 ESG 바람: 한국은 액티브, 해외는 ETF
- ESG 채권: 빈도 높은 10가지 물음에 답하다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3년차, 준수율 개선과 책임투자 정착
- ESG 채권: 질적 성장 진입, 선별적 투자 권고

※ ESG 리포트 발간 사례



□ ESG 관련 지수 개발을 통해 ESG 관련 신사업 모색

- 인덱스 개발팀을 신설하고, 인덱스 사업을 적극 확대
- 총 10종의 인덱스*를 출시하였으며, 3종 이상의 신규 인덱스 출시 준비 중

* 대표 인덱스 : iSelect EGS 지주회사 인덱스 (글로벌 투자 트렌드인 ESG를 한국 지주회사 주식에 반영한 지표)

- 기업 지배구조와 리더십, 노사관계와 업무문화 등을 딥러닝 기반 실시간 자동평가하고, 이를 누적해 분기별 리밸런싱 실시
- KIS채권평가 등 외부업체와 협업을 통한 ESG 관련지수 개발

□ ESG 관련 IR 행사 개최* 등 민간주도의 ESG 투자환경 조성

* "NH ESG Corp Day" 등 ESG 다수 행사 개최

□ 농촌경제 현황 분석을 통한 농협 고유의 ESG 문화 확산

- 농촌경제 현황을 분석하고 농촌인구의 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농가소득 증대 방안 제시

※ 농촌경제보고서 발간 사례



- ▶ 환경(E)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을 살펴보고, 저탄소 농업(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제도) 소개
- ▶ 사회(S) 측면에서 농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평가받는 사회적 농업(사회적 약자 보호 및 교육, 일자리 제공)의 이해
- ▶ 지배구조(G) 측면에서 농촌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리더 선출, 공동 규약 및 감사제도 도입, 소통 프로세스) 제안

6 자산운용사(한화자산운용)

- '20년 9월부터 투자대상 기업 중 ESG 이슈에 민감한 섹터 및 종목 32개 기업*을 선정하여 운용사와 투자대상 기업이 함께 고객 수탁자 책임활동(Engagement 활동)** 이행

* 기후리스크(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기업 15개사), 포장재 관리(유통회사 5개사), 사이버보안 위협(금융사 9개사, 클라우드서비스 제공 3개사)

** 기업들의 영업활동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ESG 관련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고 올바른 방안을 제시하는 등 운용사와 대상기업이 함께 목표를 세우는 활동

- 대표이사, 주식·채권운용담당 본부장, 리스크관리 본부장, 준법감시인, 유관부서 책임자로 구성된 '수탁자책임활동위원회'에서
①회사 주요정책 관리, ②수탁자 책임활동의 범위 및 내용 결정
- 해당 활동관련 투자대상 운용부서, 리서치 담당부서 등 실무자로 구성된 '책임투자실무위원회'에서 수탁자 책임활동 수행

※ 수탁자 책임활동(Engagement 활동) 프로세스



- 자산운용에 기후관련 요소 반영 등 녹색투자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위해 주주로서의 역할 적극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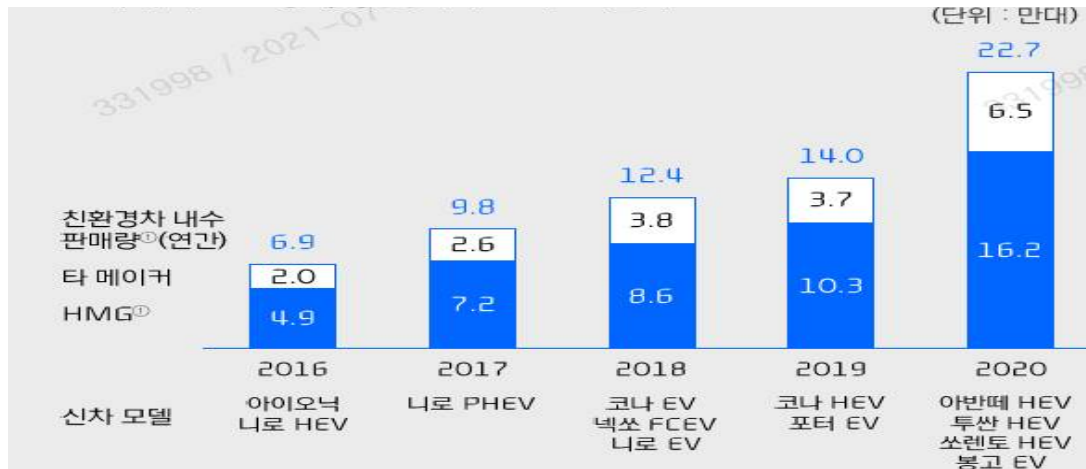
* 예시) 투자대상 기업인 발전회사의 '기후변화 위험 관리활동 및 이의 공개 계획'에 대한 Engagement 활동을 수행 → 투자대상 기업에 석탄발전 투자 관련 이사회 결정에 대해 탄소배출 감축 관련 의견 전달

- '19년 첫 ESG채권 발행 이후 누적 3회, 약 1.1조원 발행하며
국내 ESG채권 시장의 정기 공급처로의 역할 수행 중

※ 현대카드 ESG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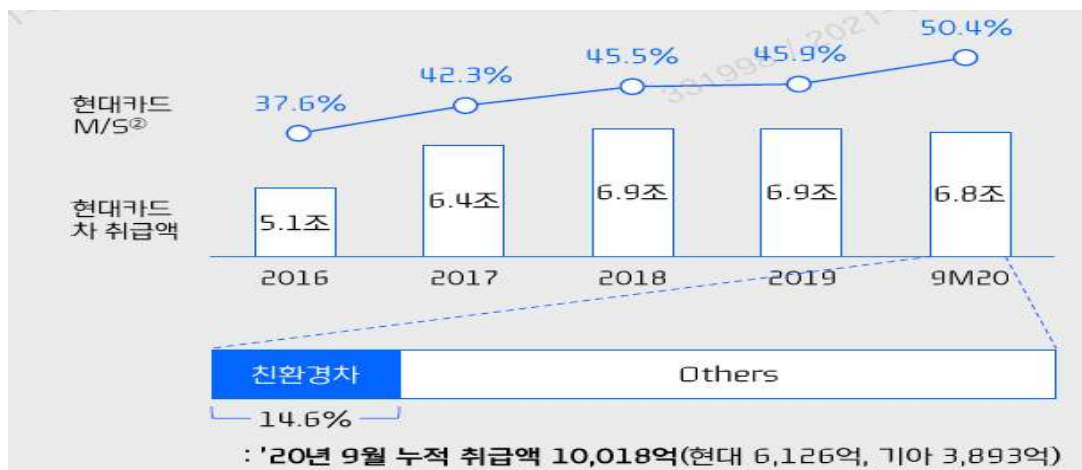
현대자동차와 KIA 친환경차 구입 고객 대상 구매자금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
등을 기반으로 ESG채권 발행

- "내연기관 → 수소·전기" 전환에 따른 친환경 차량 내수 판매량 급증



* 산업통상자원부 '20년 12월 및 연간 자동차산업 동향', 현대/기아차 '20년 판매실적

- 현대자동차그룹 캡티브 금융사로서 차 결제 시장 내 우위 선점



* 현대기아차 현대카드 결제액 / 현대기아차 전체 신용카드 결제액

- ❶ 국제자본시장협회(ICMA)가 제정한 원칙에 따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❷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검증 및 ❸채권발행 후 1년 이내에 사후보고서 작성 및 외부 공시

외부 공시(KRX 사회책임투자채권)

KRX 사회책임투자채권

채권소개 채권현황 보고/공시 환경 자료실

ENGLISH

사회책임 투자채권

한국거래소가
ESG 지능가능성장을
지원합니다.

최근 신규상장 (신북·백만원)

+

녹색채권	사회책임채권	자속가능채권
종목명	상장일	상장한도
한국투자채권(500만원)	2021-03-27	210,000
한국투자채권(400만원)	2021-03-27	140,000
한국투자채권(300만원)	2021-03-27	180,000
신한카드(210만원)	2021-03-22	80,000

최근 상장현황

채권종류	상장금액 (조원)
녹색채권	791
사회책임채권	116.2
자속가능채권	94

외부검증 보고서

외부 검증인의 검증 보고서

수신: 현대카드 경영진

검증 범위

본 검증은 현대카드(이하 "회사")로부터 녹색채권 관리체계(이하 "관리체계") 및 아래 언급된 발행예정인 녹색채권에 대해 제한적 확인 업무 수행을 요청 받았습니니다.

[검증대상 녹색채권]

발행 회차	발행금액	만기	비고
현대카드 제 768 회	2,400 억원	2~7 년	8 월 29 일 발행

* 발행금액 및 만기는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증기준

본 검증인은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에서 발행한 ICMA Green Bond Principles 2018(이하 "녹색채권원칙")을 기준으로 합니다.

- ESG채권 자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실적집계 프로세스 (❶정보취득 → ❷정보집중·분석 → ❸최종 보고) 구축

※ ESG채권 실적집계 프로세스

- ❶ 정보취득 : 현대카드 금융서비스로 현대자동차/KIA 구매 계약 시, 고객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구입차량정보 등) 제3자 제공 동의 획득
- ❷ 정보집중·분석 : 수집주기(Daily), 수집주체(ESG 발행부서), 수집정보(친환경 차량 판매량 및 금융 서비스 이용액)

[실적 모니터링 시스템 내 데이터 추출 예시]

기준일자	판매사	결제액(만원)	모델명	분류
XXXX/XX/XX	현대차	X,XXX	아이오닉5	EV
...

- ❸ 최종보고 : 자금 사용내역 및 환경 기여도* 정량화 보고 ('20.12월 환경부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준용)

* (예) 연간 CO2 배출 감축량 = 친환경차 대당 내연기관 모델 대비 CO2 감축량 X 연평균 주행거리 X 친환경차 연간 총 판매량

- ESG채권 발행을 통해 달성한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량도 함께 제공해 ESG채권 발행에 따른 환경기여도를 객관적 수치화*

* ESG채권 발행실적('21.6월말 원화채권 기준) : 발행횟수 3회, 발행금액 1.14조원, 할부금융 대상 친환경차량 56,928대, 탄소감축량 연간 42,803톤

가. BNP Paribas 「2019 TCFD Report」

□ **(지배구조)** BNP 그룹 이사회는 기후변화 관련 그룹의 전략을 결정하며, 집행위원회와 전담부서가 전략수행 지원역할을 담당

○ 이사회는 장기적 가치창출을 위해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그룹의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그룹의 환경성과와 관련된 경영진 보상체계 승인

* 경영진 보상은 그룹의 수익성 등 재무성과(75%), 이사회 정성평가(15%), CSR기준(10%)의 3가지 영역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환경성과는 CSR기준 평가요소 중 하나

- 이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위원회(CGEN*, CCIRC**)를 설치하였으며 CGEN은 그룹의 환경 이슈 감독(석탄산업 지원 축소 등) 등을, CCIRC는 그룹 전략의 환경 적합성과 위험 성향에 대한 이사회 앞 조언 등 수행

* CGEN(The Corporate Governance, Ethics, Nominations and CSR Committee)

** CCIRC(The Internal Control, Risk and Compliance Committee)

□ **(경영전략)** 그룹 내·외부에서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 요인을 식별하고 그룹의 경영활동 전반에 적용

○ 그룹이 노출된 기후위험을 파악하고 녹색금융 기회 요인을 발굴

○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는 영업 전략 재무계획 등에 영향을 미치며 탄소등급제 금융지원 등은 대표적 사례

- 피투자기업에 대해 탄소등급제*를 시행하여 해당 기업들의 에너지 전환을 장려

*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A~D 사이의 등급을 부여하며 C, D등급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평가를 진행하여 투자대상 여부 결정

- 그린본드, 소셜본드, 그린대출, 지속가능연계대출, 그린펀드 등 조달 및 운용 측면을 아우르는 금융지원 실시

· '19년에는 62억 유로 규모의 지속가능연계대출(Sustainability Linked Loans)*, 3개의 투자펀드 결성, 10개의 생태 및 에너지 전환 스타트업 투자 등 실시

* 차입기업과 대출은행의 협의에 따라 선정된 ESG 평가 기준(환경 등)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은 낮은 금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는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

□ **(리스크 관리)**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해 다중 이해관계자 프로세스를 수립하였으며,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정책을 제정

○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한 다중 이해관계자 프로세스 수립

- 유럽 각 국 37개의 사회책임투자 투자자에게 그룹의 전략을 제시

- 전세계 우호 NGO와 석탄, 삼림 벌채 등을 주제로 토론회 지속 개최

○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사업부문을 관리하는 금융·투자정책 수립

- 특정 사업부문*에 제공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규칙 및 절차**를 정의

* 석탄 기반 전기 발전 광산업 팜 오일 생산 종이 펄프 생산 농업 등

**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수행시 준수가 요구되는 적도원칙 등

□ **(지표 및 감축 목표)**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표 및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 노력 경주

○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를 평가할 목적으로 다양한 지표를 계산하고 발표하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정보를 공시

- 신재생에너지 파이낸싱 규모는 '19년 159억 유로로 '15년 대비 120% 증가하였으며, 직원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9년 2.32 tCO_{2e}/FTE*로 4년 만에 20% 감소
 - * tCO_{2e}(Tons of Carbon Dioxide equivalent, 이산화탄소환산톤)는 온실가스 배출통계 측정단위로 다양한 종류의 온실가스를 지구온난화지수(CO₂=1, CH₄=21, N₂O=310)를 이용하여 CO₂에 상당하는 온실효과로 환산, FTE(Full time equivalent)는 전일종사 노동자 수를 의미
- '19년 그룹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461천 tCO_{2e}로 전년 대비 7.1% 감소
 - (Scope1) 건물의 가스·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 61천 tCO_{2e}
 - (Scope2) 에너지 구매와 관련된 간접 배출량은 281천 tCO_{2e}
 - (Scope3) 출장시 교통수단 이용으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은 119천 tCO_{2e}
-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파이낸싱, 탄소 집약도 등에 대해 양적 목표 확대
 - '15년에는 '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파이낸싱에 할당된 금액을 '15년의 두 배 수준인 150억 유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수립 및 조기 달성('18년)*
 - * '19년 말 기준 159억 유로 '21년 말까지 180억 유로로 목표 상향 조정
 -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탄소집약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8년 그룹이 대출 및 투자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 프로젝트의 탄소 함량은 글로벌 평균 476 gCO_{2e}/kWh(1kWh당 이산화탄소환산그램) 보다 낮은 299 gCO_{2e}/kWh

나. Barclays PLC 「2020 TCFD Report」

□ (지배구조) Barclays PLC 이사회는 기후변화 관련 그룹의 전략 등을 결정

- 이사회는 기후위원회(BCC*)를 설치('20년)하고 기후위원회를 통해 그룹의 활동을 감독, 조언 그리고 관련 이슈에 대한 최신 정보를 보고 받음

* Board Climate Committee

- 이사회 내 리스크위원회(BRC*)는 '22년부터 기후위험을 ERMF (Enterprise Risk Management Framework)** 상 주요위험으로 지정

* Board Risk Committee

**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

- 기후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후위험책임자(Head of Climate Risk) 임명('20.7월)

- 기후위험책임자는 기후위험 관련 지배구조 구축,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 및 탄소 모델링 개발 등 수행

□ (경영전략)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 요인을 식별, 이해, 관리하는 능력을 제고하여 '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 달성 추진

-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선언('20.3월)

- 자체 운영 배출량(Scope 1 및 2)은 이미 Net-zero를 달성하였으며, 고객의 배출량(financed emission) 감축에 집중 예정

-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한 별도 조직 신설
 - 지속가능한 은행 상품과 솔루션 개발, 타 조직과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Sustainable Product Group 신설
 - 고객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बैं킹 팀 신설
- '30년까지 1,000억 파운드의 목표로 녹색금융을 추진하여 저탄소 경제 전환에 기여
 - '19년말 기준 150억 파운드, '20년말 180억 파운드로 약 330억 파운드 녹색금융 추진
- 지속가능한 임팩트 자본 이니셔티브(Sustainable Impact Capital Initiative)를 통해 혁신적이고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신생 기업에 약 1억 7,500만 파운드 투자 예정
 - '20년말 기준 2,400만 파운드 투자,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투자 예정
- (리스크 관리) ERMF(Enterprise Risk Management Framework)를 통해 기후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
 - ERMF은 그룹의 모든 영역에 대한 기준, 목표 및 책임을 정의하고 위험 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방법을 설정
 - '19년에 발표한 'Climate Change Financial Risk and Operational Risk Policy'에 따라 기후 변화에 따른 평판 · 신용 · 시장 · 재무 및 자본(Treasury and capital) · 운영 리스크를 관리

○ 기후 리스크는 물리적 리스크, 이행 리스크 및 연계 리스크*로 분류

* 물리적 또는 이행 리스크 영향에서 발생하는 2차 위험

- 기후 변화에서 발생하는 요인을 단기(~1년), 중기(1~5년), 장기(5~30년)로 구분하여 파악

□ **(시나리오 분석)** NGFS 기후 시나리오 프레임워크* 중 ‘무질서한 이행(Disorderly)’ 및 ‘현상유지(Hot house world)’ 기반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 물리적 리스크(physical risk) 와 이행 리스크(transition risk)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3개 범주[‘질서 있는 이행(orderly transition)’, ‘무질서한 이행(disorderly transition)’, ‘현상유지(hot house world)’] 6개 시나리오로 구분

○ **(무질서한 전환)** 기후정책 도입 지연과 기술 한계로 '30년부터 지구 온도를 2℃ 미만으로 제한하기 위해 탄소배출량을 급격하게 감축하는 과정에서 이행 리스크 증가 가정

⇒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기후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31~'35년에 각 경제 주체들은 탄소세에 더 많이 노출되고, 급격한 저탄소 경제 전환에 따른 단기 실업의 완만한 상승 등으로 인하여 가계 부분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거시 경제 충격으로 경제적 최대 손실 예상

○ **(현상유지)** '50년까지 기후 정책의 현상 유지로 탄소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지구 온도가 2℃ 이상이 되어 심각한 물리적 리스크 발생 가정

⇒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미국 해안 도시 또는 영국의 높은 홍수 위험에 노출된 지역 등의 물리적 리스크 취약성을 파악

- (지표 및 감축 목표) 파리협정을 준수하고 기후변화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20년말 BlueTrack^{TM*}을 도입하고 다양한 지표를 계산 및 관련 정보를 공시

* 2018 IEA 지속가능한 개발 시나리오(Sustainable Development Scenario) 기반 벤치마크를 설정하고 포트폴리오의 배출량 관리

- 탄소 관련 자산은 '20년말 기준 25,652백만 파운드로 전체 자산의 약 4% 수준
 - 에너지 부문 15,585백만 파운드, 전력 부문 10,067백만 파운드로 구성
- 에너지 부문의 '20년말 절대 금융배출량은 75.0MtCO₂으로 '25년까지 15% 감축을 목표로 설정
- 전력 부문의 '20년말 탄소집약도는 321kgCO₂로 '25년까지 30%감축을 목표로 설정

IV 관련 QA 및 실무 해석례

1 일 반

1.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금융권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의 성격인지 여부

- ☐ 가이드라인은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녹색금융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반드시 해당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의 성격은 아님
- ☐ 아울러,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우리 경제와 사회가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인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산업 지원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조속한 전환을 위해 금융권이 견지해야 할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2. 가이드라인이 참고자료 성격임에도 적용대상 및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 가이드라인은 참고자료의 성격이나, 금융권이 녹색금융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최소한의 적용대상 및 시기 규정을 제시
 - 따라서, 금융회사의 규모,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의 적용여부, 적용범위 및 시기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금융회사는 동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회사의 사정에 맞게 내부절차를 마련하여 운영

3. 금융회사는 녹색금융 업무 및 환경리스크 관리 등
주요사항과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 등의
운영을 의무화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 ☐ 가이드라인은 녹색금융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금융회사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님
- ☐ 다만, 금융회사는 녹색금융 업무 및 환경리스크 관리를 위해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 이는 금융회사의 중대한 경영전략 및 리스크 관리에 책임이
있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가
담당할 것을 권고하는 것임
- ☐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의 국제협의체인 TCFD도 기후
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이사의 역할
등 조직의 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4. 녹색금융 업무 및 환경리스크 관리 등을 담당하는
의사결정기구로서 설치할 수 있는 이사회내 위원회가
지배구조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위원회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 금융회사가 녹색금융 업무 및 환경리스크 관리 등을 담당하는
의사결정기구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 ‘지배구조법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지배구조법이 규정
하고 있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과 관련 업무 성격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결정될 필요
- 예를 들어,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위험 수준 결정,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등을
심의·의결하여 환경리스크 관리와 업무상 유사성이 있으며,
 - 녹색금융과 관련한 경영전략 등을 수립하기 위해 별도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함

5. 녹색산업과 관련한 기업이 발행한 지분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녹색금융의 방법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 녹색산업과 관련한 기업의 지분 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해당 기업에 신규로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에 한하여 녹색금융의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음
- ☐ 따라서, 단순히 녹색산업 및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업이 발행한 지분 등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녹색금융의 방법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6. 녹색사업을 신규로 영위하고자 하거나 녹색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녹색금융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자금지원의 대상인 기업이 현재 녹색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이와 관련된 사업을 새롭게 영위하거나 녹색산업 관련 분야로 전환하기 위한 용도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녹색금융의 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음

7. 가계대출이 은행권 자금공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계대출도 녹색금융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 녹색금융은 금융회사가 녹색산업 및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업, 자산 등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대출의 종류에 제한을 두지 않음
- 따라서, 금융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가계대출 중에서도 녹색산업 및 녹색성장과 관련된 자산 등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녹색금융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예컨대, 해외 금융회사의 경우 에너지 효율적 부동산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전기차 구매 등 에너지 효율 차량 구매를 위한 대출 등 고객의 친환경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환경 리스크를 줄이는 녹색금융 상품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8. 금융회사 간 외화자금 조정을 위한 인터뱅크 거래의
경우 녹색금융의 방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 ☐ 특정 거래가 녹색금융에 해당하는지는 가이드라인 3.3이 정하는
녹색금융의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
- ☐ 인터뱅크 거래의 경우 금융회사 간 환보유고 불균형을 조정
하기 위한 자금 거래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녹색산업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움

9. 금융투자업자가 시장조성* 또는 프랍트레이딩 등의 목적으로 단기 매매를 하거나, 고객의 주문에 따른 채권 중개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의 경우에도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176조제3항에 따른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을 위한 거래, 자본시장법 제393조에 따라 거래소 업무규정에 정한 유동성공급 또는 시장조성 목적의 거래 등

- ☐ 금융투자업자가 직접적으로 녹색산업에 투자, 대출 또는 보증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이 아니라 자본시장에서의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행하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녹색금융으로 분류하기 어려움
- ☐ 다만, 시장조성 등의 행위가 녹색산업 및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업의 IPO에 참여하는 등 해당 기업이나 산업에 신규자금이 유입되는 방식인 경우 이는 녹색금융으로 분류할 수 있음

10. 금융투자업자가 녹색펀드 등을 투자중개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이 정하는 녹색금융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금융투자업자가 직접적으로 녹색산업에 투자, 대출 또는 보증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펀드를 투자 중개하는 경우에는 이를 녹색금융으로 분류하기 어려움
- ☐ 다만, 녹색금융 관련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가이드라인 3.5에 따라 이에 대한 실적의 관리 등은 필요할 수 있으며,
 - 가이드라인은 펀드 등 금융상품 판매 시 환경과 관련한 금융 소비자의 투자성향 정보의 파악 및 제공 등 준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음

11. 투자자가 증권,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는 경우로서
증권회사가 이를 중개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이 정하는
녹색금융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 고객이 MTS를 통해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등

- ☐ 금융투자업자가 직접적으로 녹색산업에 투자, 대출 또는 보증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가 스스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녹색금융으로 분류하기 어려움
- ☐ 다만, 녹색금융 관련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가이드라인 3.5에 따라 이에 대한 실적의 관리 등은 필요할 수 있음

12. 집합투자업자가 벤치마크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 ETF 등을 운용하는 경우에도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 예: 코스피 200, 고배당주, 철강, 중공업 등

- 패시브 펀드, ETF 등은 사실상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재량권한이 없어 펀드 등의 유입자금으로 추종지수의 구성종목을 그대로 편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 해당 추종지수의 다수 구성이 비녹색산업 또는 유의산업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등의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의 적용 여부 등을 정할 수 있음
- 아울러, 향후 새롭게 인덱스상품 등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녹색 금융 활성화의 취지를 감안하여 출시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

13.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시행되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녹색금융 대상을 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일률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인지 여부

-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시행되는 경우 가이드라인에 따라 녹색 금융 대상은 녹색분류체계의 기준을 따르며, 동 제도의 세부적인 시행 시기나 적용대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

14. 녹색금융과 관련한 심사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격이 별도로 필요한지 여부

- 금융회사는 녹색금융을 수행하는데 있어 녹색분야의 사업성, 기술력, 리스크 등 관련 분야의 자체 심사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여야 함
- 이에 대한 별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녹색금융 관련 심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금융회사의 내부 교육을 활용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음

15. 내·외부 신용평가정보는 ESG등급 등을 반영한 별도의 신용평가모형 등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녹색산업 관련기업의 단순 신용평가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여부

- ☐ 녹색관련 기업의 여신심사를 위해 마련한 여신심사시스템 모형 등 내부 심사절차 또는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정보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용평가모형 마련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님

16. 환경과 관련된 일반금융소비자의 투자성향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에 대해 환경적인 요소에 대한 고객의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한 면담·질문 등 금융소비자의 환경과 관련한 투자성향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소비자 관련 규제나 지침이 정하는 바를 따를 수 있으며,
 - 예컨대, 투자자성향 일반원칙, 대면거래 시 비대면평가 결과 활용, 일별 투자자성향 평가횟수 제한 등 일반적인 사항은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행정지도, ~'22.7.4)이 규정한 사항을 참고할 수 있는 것임
- * 동 지침은 투자자 적합성 평가와 관련한 일반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이며, 투자자성향 평가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님

17.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환경과 관련한
투자성향 등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 일반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의 구체적인 범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등은 어떻게 되는지

□ 금융소비자의 투자성향 등 정보의 파악에 있어서 금융소비자
및 금융상품의 범위, 판단 기준 등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를 수 있음

□ 따라서, 환경과 관련한 투자성향 등 정보의 파악은 일반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각 호 등이 정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필요하며,

*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예: 국가, 금융회사 등)가 아닌 금융소비자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 외에 더
넓은 범위의 금융소비자나 금융상품에 대해서까지 금융회사에
환경과 관련한 투자성향 등 파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 한편, 환경과 관련하여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평소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인식의 정도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할 수 있으며,

○ 예를 들어,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의산업 분야가 주요 투자대상인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4 유의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의 관리

18. 물리적리스크와 이행리스크의 실제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 물리적 리스크는, 기후변화로 인한 실물부문의 물적 피해가 거래관계를 통해 금융 부문에 파급되는 리스크로 보험지급금 증가*, 은행신용리스크 증가**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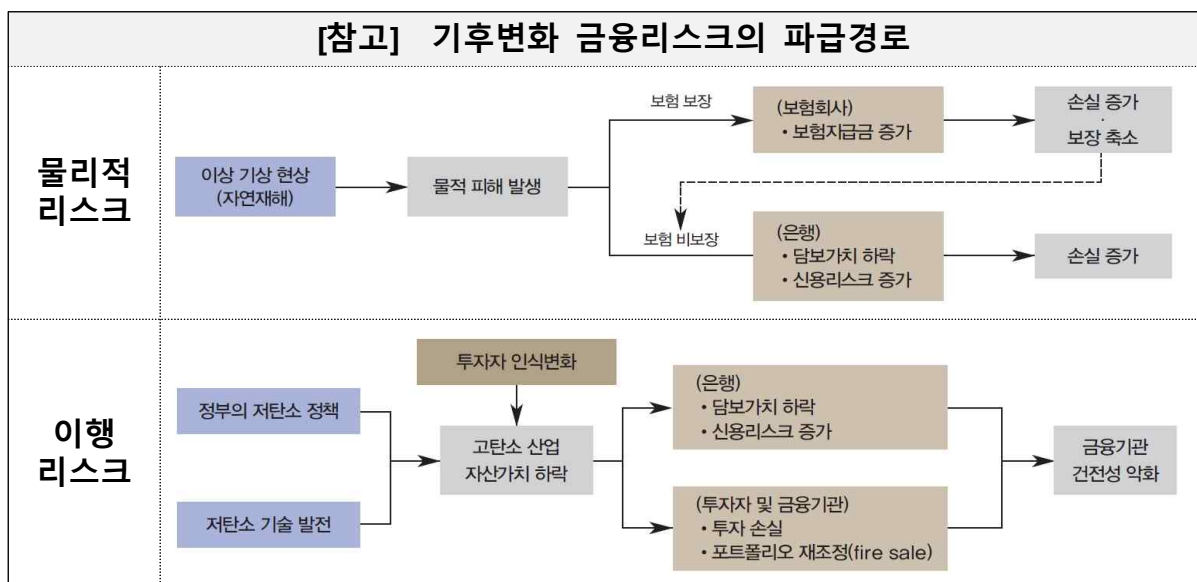
* 집중호우 및 산사태로 인한 자동차 침수 피해↑ → 자동차보험 손해율↑

**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으로 농산물 피해 발생시, 은행의 농·식품산업 대출·보증·융자 등에 대한 상환지연 등

- 이행 리스크는, 저탄소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탄소배출 산업의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로 담보가치 하락*, 투자손실**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주택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에 따른 부동산 가치 하락

** 친환경 에너지 기술 발전에 따른 에너지회사 주가 및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금융회사 투자 손실



* TCFD 2017, 한국은행 2018.6월

19. 금융회사가 유의산업 분야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경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 유의산업의 유형이나 종류 등에 대해 별도의 기준은 없으나, 금융회사는 적도원칙이 정하는 환경·사회리스크 평가항목 등을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중대한 영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참고 > ‘적도원칙’ 환경·사회리스크 평가항목

1. 환경·사회 기초 현황 평가
2. 실행 가능하고 환경·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대안 검토
3. 소재국 법률 및 규정, 그리고 적용 가능한 국제 조약 및 협정(2015 파리 협정 포함)에 따른 요건
4. 생물다양성(교란된 서식지, 자연 및 중요 서식지의 멸종위기종과 민감한 생태계 포함)의 보호와 보전 및 법정보호지역의 식별
5. 재생가능한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사용(적절한 독립 인증시스템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포함)
6. 위험물질의 사용 및 관리
7. 주요 유해성 평가 및 관리
8. 효율적 생산(결과 조정 요인당 총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의 운송 및 사용)
9. 오염 방지 및 폐기물 최소화, 오염통제(유출수 및 대기 배출) 및 폐기물 관리
10. 온실가스 배출 수준 및 배출 집약도
11. 물 사용, 물 이용 집약도 및 수자원
12. 토지 피복, 토지 이용 실행
13. 물리적 기후 리스크 및 적응 기회에 대한 고려, 변화하는 기상패턴 및 기후조건 하에서 프로젝트 운영의 성공 가능성
14. 기존 프로젝트, 지원 대상 프로젝트, 그리고 향후 계획된 프로젝트로 인한 누적 영향
15. 부정적인 실제 또는 잠재적 인권 영향에 대한 고려. 만약 이와 같은 영향이 식별되지 않았다면 인권 위험이 없음을 결정한 방법에 대한 설명(조사과정에서 어떠한 이해관계자 집단과 취약한 인구가 고려되었는지에 대한 내용 포함)
16. 노동 관련 이슈(4개의 핵심노동기준 포함) 및 직업 보건과 안전
17. 프로젝트 설계, 검토 및 이행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집단의 협의 및 참여

18. 사회경제적 영향
19.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그리고 소외 또는 취약 계층에 대한 영향
20. 성별 영향과 불균형적인 성별 영향
21. 토지 취득 및 비자발적 이주
22. 원주민과 그들의 고유한 문화적 제도 및 가치에 미치는 영향(원주민의 전통적 소유 또는 관습적 사용 대상에 해당되는 토지와 자연자원에 대한 영향 포함)
23. 문화재 및 문화유산 보호
24. 지역사회의 보건, 안전 및 보안에 대한 보호(프로젝트의 보안요원 활용에 따른 위험, 영향 및 관리 포함)
25. 화재예방 및 생명안전

20. ‘유의산업 분야’에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지원을 하는 경우 유의산업 분야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4.1.1B)와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지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4.2.2C) 등을 개별적으로 각각 수행해야 하는 것인지

- ‘유의산업 분야’에 ‘일정 수준 이상’인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유의산업 관련 평가와 일정 수준 이상 거래 관련 평가가 요구하는 개별 평가요소 등이 누락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나의 평가로 갈음할 수 있음

21. 유의산업 분야에 조건부 금융지원을 하는 경우
금융지원을 받는 자가 해당 조건을 어길 시 기한이익
상실의 사유가 되는지

-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양한 방식의 조건부 금융지원이 가능하며, 이는 계약조건의 일부임
- 따라서, 금융지원을 받는 자가 해당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것은 기한이익상실의 사유가 되는 것임
 - 예를 들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과 이행을 계약에 반영하고, 해당 계약에 이에 대한 위반 행위를 기한이익상실의 사유로 정하는 것도 가능

22. 유의산업 관련 익스포저 한도를 '0'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

- ☐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경영전략 등에 따라 유의산업과 관련한 익스포저의 한도를 '0'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

23. 환경영향 검토절차를 필요로 하는 일정 수준의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금융지원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 금융회사별로 금융지원 방식, 자산운용 규모 등이 상이하므로,
금융회사별 상황에 맞는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특정 프로젝트에 관한 대출금액이 5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 환경·사회 리스크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적도원칙 등
국제기준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음

< 참고 > 적도원칙 적용범위

- 적도원칙 : 대형 개발사업이 환경파괴, 인권 침해 등 문제 유발 시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협약
- 적용 대상 : 신규 프로젝트 지원 시 아래의 금융상품에 적용
 1. 프로젝트 총액이 US\$10백만 이상인 프로젝트금융 자문서비스
 2. 프로젝트 총액이 US\$10백만 이상인 프로젝트금융
 3.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프로젝트 관련 기업 대출
 - i. 대출금액의 과반이 고객이 실질적 지배권을 갖는 하나의 프로젝트와 관련
 - ii. 총 대출금액 및 적도원칙 채택 금융기관의 개별 약정 금액이 각각 US\$50백만 이상
 - iii. 대출기간이 2년 이상
 4. 상기 2항 및 3항의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 금융 또는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로 리파이낸스가 의도된 대출기간 2년 미만의 브릿지론
 5.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프로젝트 관련 리파이낸스 및 프로젝트
관련 인수금융
 - i. 프로젝트가 과거 적도원칙 프레임워크에 따라 금융 지원을 제공 받음
 - ii. 프로젝트의 규모 또는 범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바 없음
 - iii. 금융계약서 서명 시점에 아직 프로젝트 준공이 발생하지 않음

24. 거래관행에 따라 거래처에 특정 거래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4.2.2D)를 강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후관리 절차를 계속 이행하여야 하는지?

- ☐ 금융회사는 4.2.2C에 따라 경감대책이나 관리조치 필요한 경우 이를 금융계약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계약상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 등을 반영하는 방법 등으로 이행 가능
- ☐ 다만, 거래처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여 해당 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내용과 사유 등을 문서화하는 방법 등으로 검토절차의 수립과 이행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임

25.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여야 하는 금융회사의 자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건물 등 부동산에 한정하는 것인지
여부

- 온실가스 배출은 배출원에 따라 직접배출(Scope1)과 간접배출(Scope2·3)로 구분하며, 간접배출은 에너지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Scope2)과 기타 간접배출(Scope3)로 구분됨

※ 온실가스 배출량의 유형

- Scope 1 : 기업이 직접 소유·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
- Scope 2 : 기업이 소비하는 구매 전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
- Scope 3 : 기업의 활동에서 기인하지만 다른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

- 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대상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 또는 추정이 가능한 자산 전체가 관리대상이 되는 것이며, 특정 자산의 종류(예: 부동산)에 한정하는 것은 아님

- 예를 들어, 영업용 차량(Scope 1) 등이 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임직원의 출장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 등이 간접배출 관리대상이 될 수 있음
- 참고로, 금융회사의 건물 및 서버 등의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은 에너지 사용에 의한 간접배출(Scope2)이며, 금융회사의 대출·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자산포트폴리오 배출량은 기타 간접배출(Scope3)에 해당함

26.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온실가스 배출량 유형 및 분류체계 등 프로토콜은 WRI(World Resource Institute, 세계자원연구소)의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 기준(GHG Protocol for Corporat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이 가장 대표적임

*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보고 관련 국제표준을 제공할 목적으로 WRI와 세계 지속가능발전기업위원회(WBCSD)가 공동으로 제정한 기준

- 배출량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하며, CDP의 ‘기후변화 보고 가이드스’* 등에서 다양한 국제적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음

*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 경영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공시정보를 분석해 투자자 및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비영리기구,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시를 돕기 위한 ‘기후변화 보고 가이드스’ 등 지침 발표

- 금융회사의 자산 포트폴리오 배출량 측정은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 탄소회계금융협의체)이 발표한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등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세계 온실가스 회계보고 기준(The Global GHG Accounting & Reporting Standard, '20.11월)’이 대표적임

* PCAF는 금융배출량의 일관성 있는 회계 및 공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9.9월 금융업계의 자발적 주도로 설립(현재 Morgan stanley, BOA, CITI, 신한금융, KB금융, 기업은행 등 전 세계 111개 금융회사 참여)

- 한편, 금융회사는 위 기준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거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음

5 리스크 관리 및 평가

27. 가이드라인의 리스크 관리 및 평가에 관한 내용과 기후리스크 관리지침이 정하는 내용의 관계

- 가이드라인이 규정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 및 평가에 관한 내용은 금융회사가 녹색금융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향후 공개·시행될 기후리스크 관리지침에는 기후 또는 환경 리스크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며,
 - 기후리스크 관리지침이 시행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리스크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가이드라인은 리스크 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포괄적인 사항을 담고 있으므로, 기후리스크 관리지침의 내용과 충돌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임

28. 가이드라인에서 녹색금융과 관련한 리스크의 의미 또는 예시가 무엇인지

- ☐ 녹색금융과 관련한 리스크는 금융회사가 녹색산업 및 녹색 성장과 관련된 기업, 자산 등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의미함
- ☐ 예를 들어, 투자대상의 신용리스크가 가장 대표적*이며, 녹색 금융의 대상이 기존 금융회사의 전통적 투자 대상이 아닌 신사업의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한 관련 산업리스크, 환경 관련 법규 등 법률 리스크, 평판리스크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예) 채무자의 소득 및 수익성 감소 등 채무상환능력 저하로 인한 부도율(PD), 부도시 손실률(LGD)의 상승 또는 담보자산의 가치 하락 등으로 초래되는 금융회사의 손실위험

29. 정보의 공개 등에 있어 대외적으로 통용되는 기준 및 투명성의 원칙이 어떠한 기준이나 원칙을 의미하는지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발표한 ESG모범기준에 따르면, 정보 공개에 있어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 함
 - 명확성 : 이해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고 구체적이어야 함
 - 비교가능성 : 정보의 보고기준 및 범위는 비교 또는 시계열적 비교가 가능하여야 함
 - 일관성 : 보고대상 및 범위, 보고기간, 보고빈도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한 기준에 따라 데이터를 공개
 - 신뢰성 : 공개한 정보가 적절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객관적, 독립적으로 검증 가능하여야 함
- 그 밖에 TCFD의 권고안이 정하는 기준 등을 참고할 수 있음

30. 임직원이 녹색금융과 관련한 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 관련 법률을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위반한 경우 금융회사가 임직원의 위반행위를 자체적으로 면책하는 것이 가능한지 및 이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로부터도 면책되는 것인지 여부

- ☐ 금융회사가 녹색금융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법률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면책여부는 금융회사가 정한 내규 등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 ☐ 아울러,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재를 할 것인지는 위반행위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면책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해당 임직원에 대해 금융당국이 일률적으로 면책하는 것은 아님

V 용어의 정리

1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배출 관련

용어	영문(Full name)	설명
UNFCC (‘92 출범)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현상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92년 리우데자네이루 환경회의에서 채택된 협약 (기후변화 위험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협력 회의)
COP (‘95 출범)	Conference of Parties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매년 총회 개최, '21년에는 영국에서 COP26 개최예정)
교토의정서 (‘97)	Kyoto Protocol	주요 선진국(한 제외, 37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수준 지정
파리기후변화 협약 (‘15)	Paris Climate Change Accord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15년 파리 개최)에서 채택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국제협약(21.1월부터 적용), 194개 당사국에 보편적 구속력이 있는 첫 기후 합의,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2℃ 이하로, 나아가 1.5℃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
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파리기후협약에서 모든 당사국에게 제출을 요구한 중장기 탄소감축 전략 ('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략)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각국이 5년마다 제출해야 하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우리나라: '30년까지 '17년 대비 24.4% 감축 목표 제시)

IPCC (‘88 출범)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적 분석과 정책방향 제공을 목적으로 유엔환경 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가 공동 설립한 국제기구
SBTi (‘15 출범)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파리기후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들이 과학에 기반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방법론 제공(금융부문 지침 ‘21.4월 업데이트)
GCP (‘01 출범)	Global Carbon Project	국제 과학계와 협력해 탄소와 지구 시스템에 대해 연구하는 프로젝트
P4G (‘17 출범)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녹색 경제 분야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 이니셔티브(‘17)
RE100 (‘14 출범)	Renewable Energy 100%	50년까지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 (‘20.7월 기준 전세계 242개사 참여 중)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일정규모 이상 발전 사업자는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도록 만든 제도
유럽그린딜 (‘19 발표)	European Green Deal	EU 집행위원회에서 중장기 경제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정책 로드맵(‘19) - 탄소배출 감축, 에너지의 탈탄소화, 신산업 전략, 지속가능한 운송, 건축분야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 강화, 식품안전 및 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정책 제시 (‘23년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
기후중립	Neutrality	인간활동이 기후에 어떠한 영향도 초래하지 않는 상태

넷제로	Net Zero	탄소포함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0인 상태
탄소중립	Carbon Neutrality	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해 순배출량 0으로 만드는 것
탄소발자국	Carbon Footprint	개인 또는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탄소 총량(Scope 1~3으로 구분)
BAU	Business As Usual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온실가스 저감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온실가스 추정치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대기로 배출하기 전에 포집한 다음 압력을 가해 액체상태로 만들어 해저 또는 지하에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기술
탄소누출	Carbon Leakage	기업이 탄소배출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국가로 생산설비를 이전하는 현상
순환경제	Circular Economy	친환경 제품 생산으로 폐기물을 줄이고, 새 제품 생산 시 기존 제품을 재활용하는 등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경제 시스템

2 녹색금융 및 기후리스크 관련

가. 녹색금융 및 기후리스크 일반

용어	영문(Full name)	설명
UNEP FI (‘92 출범)	UN Environment Programme-finance initiative	유엔환경계획 이니셔티브: 지속가능 금융을 위한 유엔환경계획(UNEP)과 금융기관간 민관협력(PPP)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ESG를 비롯한 비재무적 요소까지 고려한 경영과 투자, 리스크 관리 및 정보공개 추구)

UN PRI (‘06 출범)	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유엔책임투자원칙: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의 책임투자 흐름을 이끌고 있는 가장 큰 이니셔티브로, 투자분석 및 결정 과정에 ESG 이슈를 통합하는 등 6개 항목으로 구성
적도원칙 (‘03 출범)	Equator Principles	대형 개발사업이 환경파괴, 인권 침해 등 문제 유발 시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협약
CA 100+ (‘17 출범)	Climate Action 100+	파리기후변화협약 달성을 위해 결성된 글로벌 투자자 들의 이니셔티브(블랙록 등 545개 이상 투자자 가입), 기업들에게 기후변화 관련 거버넌스 개선 및 배출가스 억제 등 요구
PDC (‘14 출범)	Portfolio Decarbonization Coalition	포트폴리오 탈탄소화 연합: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탈탄소화 투자를 지원하는 플랫폼(이니셔티브)
녹색채권	Green Bond	친환경 프로젝트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CBI (‘09 출범)	Climate Bond Initiative	국제 기후채권기구: 채권시장을 통해 지속가능 금융 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투자자 이니셔티브
그린스완 (‘20 발표)	Green Swan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위기의 명백한 발생 가능성을 지칭하는 용어(블랙스완을 기후위기에 빗댄 용어, ‘20.1월 BIS)
NGFS (‘17 출범)	Network of Central Banks and Supervisors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각국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가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감독 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글로벌 협의체(‘17), 녹색금융 촉진에 관한 6개 권고안 발표(‘19)(국내: 금융위, 금감원, 한은 가입) - ‘20.5월 ‘금융감독기관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후리스크 관리·감독을 위한 5가지 구체적 권고안 제시
TFCR (‘20 설치)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Risks	BCBS 산하 위원회에서 기후리스크를 담당하고, 기후 리스크 분석·대응을 위해 설치한 TF 실무그룹 - TFCR은 기후리스크의 은행시스템 전파경로, 기후 리스크 측정·평가 방법론, 바젤 프레임워크 반 영방안 등을 연구하여 ‘21년에 분석보고서를 BCBS에 제출할 계획

나. 녹색금융 및 기후리스크 공시 및 정보공개

용어	영문(Full name)	설명
GHG Protocol (‘01 발표)	Greenhouse Gas Protocol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에 관한 국제표준
CDSB (‘07 출범)	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기후정보공개표준위원회 :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 국제 표준화를 도모하는 컨소시엄 조직(현재 32개국 374개 기업이 CDSB 정보공개 프레임워크 사용 중)
TCFD (‘15 출범)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FSB(금융안정위원회) 산하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TF : 4개 핵심영역(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치)별 공시내용 권고안 발표(‘17), 국내: 환경부, 거래소, 주요 금융지주 등 지지 선언
PCAF (‘15 출범)	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탄소회계금융협의체: 기업대출 및 투자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 및 공시하기 위한 회계 방법론 개발 (금융기관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회계 및 보고 기준 발표(‘20))
유럽 기후법	European Climate Law	역내 회원국의 '50년 기후중립 달성 등을 목표로 하는 법안(현재 마무리 합의 단계)
탄소 국경세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세금 부과(EU는 '23년 도입 예고, 미 바이든 대통령 도입 고려중)
그린워싱	Green-washing	기업이 자사의 친환경 측면을 실제보다 과장하는 경향

3 ESG 관련

가. ESG 일반

용어	영문(Full name)	설명
UN SDGs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5년 UN 총회에서 '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지속가능발전 목표(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UNGC ('00)	UN Global Compact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인권, 환경 등 관련 10대원칙)
EU SFAP ('18 발표)	EU Sustainable Finance Action Plan	지속가능금융 실행계획: ESG 요소를 금융정책의 기본구조에 통합하고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금융 지원을 위해 마련된 EU의 주요 정책목표(3대 주요 목표와 10대 실행계획으로 구성)
ICGN ('95 출범)	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	국제기업구조네트워크: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정보교류 및 연구를 위해 설립('95)된 비영리기구 ('16년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 기준으로 삼음)
WBCSD ('95 출범)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글로벌 기업들의 대표적 이니셔티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Stakeholder Capitalism	기업 경영은 소비자, 종업원,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개념 (주주자본주의와 반대)
트리플 바텀라인 (TBL)	Triple Bottom Line	재무적 측면, 사회적 측면 및 환경적 측면 3가지 기준으로 기업 실적을 측정하는 경영 원칙
임팩트 투자	Impact Investing	재무적 성과 뿐 아니라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는 것
SIB	Social Impact Bond	사회성과연계채권: 민간의 투자로 공공사업 수행 후, 정부가 성과목표 달성시에만 약정에 따라 성과급 형태로 예산을 집행해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계약
사회적 채권	Social Bond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나. ESG 공시 및 정보공개

용어	영문(Full name)	설명
CRD (‘14 출범)	Corporate Reporting Dialogue	글로벌 비재무정보 공시 표준제정 기관들의 공식 협의체 (CDP, CDSB, GRI, IASB 등 8개 기관 참여)
GRI (‘97 출범)	Global Reporting Initiative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비영리기구
IIRC (‘10 출범)	Int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국제통합보고위원회: 기업 재무 및 EESG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회계원칙 제정을 위해 설립
ISO 26000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강제성 없음)
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비재무정보공개지침: ‘14년 EU에서 통과된 비재무 정보 공시 의무화 법안
SASB (‘11 출범)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지속가능성 회계기준 위원회: GRI와 함께 가장 널리 채택된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지속가능금융공시제도: EU는 ‘21.3월부터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지속가능성 리스크 등 정보제공 원칙)
SSB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지속가능성 기준 위원회: IFRS(국제회계기준) 재단이 ESG 회계 표준 마련을 위해 창설 예정(‘21)
SSE Initiative (‘09 출범)	Sustainable Stock Exchanges Initiative	각국 증권거래소의 ESG 정보공개 가이드스 수립을 지원하는 이니셔티브
중대성	Materiality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식별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표시

부록1 해외동향 및 국제기준

1 주요 연혁



※ 각 연도별 출범·발표된 사항에 대한 용어설명은 'V. 용어의 정리' 참조

2 주요 국제기준

※ 번역문은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원문과 번역문의 상이한 경우 원문을 따름

가. TCFD 권고안(Recommendations of the TCFD) 주요내용

[원 문]

C. Guidance for All Sectors

The Task Force developed guidance to support all organizations in developing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consistent with its recommendations and recommended disclosures. The guidance assists preparers by providing context and suggestions for implementing the recommended disclosures. Recognizing organizations have differing levels of capacity to disclose under the recommendations, the guidance provides descriptions of the types of information that should be disclosed or considered.

1. Governance

Investors, lenders, insurance underwriters, and other users of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collectively referred to as “investors and other stakeholders”) are interested in

understanding the role an organization's board plays in overseeing climate-related issues as well as management's role in assessing and managing those issues. Such information supports evaluations of whether material climate-related issues receive appropriate board and management attention.

Governance Disclose the organization's governance around climate-related risks and opportunities.	
Recommended Disclosure a) Describe the board's oversight of climate-related risks and opportunities.	Guidance for All Sectors In describing the board's oversight of climate-related issues, organizations should consider including a discussion of the follow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cesses and frequency by which the board and/or board committees (e.g. audit, risk, or other committees) are informed about climate-related issues, - whether the board and/or board committees consider climate-related issues when reviewing and guiding strategy, major plans of action, risk management policies, annual budgets, and business plans as well as setting the organization's performance objectives, monitoring implementation and performance, and overseeing major capital expenditures, acquisitions, and divestitures, and - how the board monitors and oversees progress against goals and targets for addressing climate-related issues.
Recommended Disclosure b) Describe management's role in assessing and managing climate-related risks and opportunities.	Guidance for All Sectors In describing management's role related to the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climate-related issues, organizations should consider including the following inform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ether the organization has assigned climate-related responsibilities to management-level positions or committees; and, if so, whether such management positions or committees report to the board or a committee of the board and whether those responsibilities include assessing and/or managing climate-related issues, - a description of the associated organizational structure(s), - processes by which management is informed about climate-related issues, and - how management (through specific positions and/or management committees) monitors climate-related issues.

2. Strategy

Investors and other stakeholders need to understand how

climate-related issues may affect an organization's businesses, strategy, and financial planning over the short, medium, and long term. Such information is used to inform expectations about the future performance of an organization.

Strategy Disclose the actual and potential impacts of climate-related risks and opportunities on the organization's businesses, strategy, and financial planning where such information is material.	
Recommended Disclosure a) Describe the climate-related risks and opportunities the organization has identified over the short, medium, and long term.	Guidance for All Sectors Organizations should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description of what they consider to be the relevant short-, medium-, and long-term time horizon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useful life of the organization's assets or infrastructure and the fact that climate-related issues often manifest themselves over the medium and longer terms, - a description of the specific climate-related issues potentially arising in each time horizon (short, medium, and long term) that could have a material financial impact on the organization, and - a description of the process(es) used to determine which risks and opportunities could have a material financial impact on the organization. Organizations should consider providing a description of their risks and opportunities by sector and/or geography, as appropriate. In describing climate-related issues, organizations should refer to Tables 1 and 2 (pp. 10-11).
Recommended Disclosure b) Describe the impact of climate-related risks and opportunities on the organization's businesses, strategy, and financial planning.	Guidance for All Sectors Building on recommended disclosure (a), organizations should discuss how identified climate-related issues have affected their businesses, strategy, and financial planning. Organizations should consider including the impact on their businesses and strategy in the following are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ducts and services - Supply chain and/or value chain - Adaptation and mitigation activities - Investmen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 Operations (including types of operations and location of facilities) Organizations should describe how climate-related issues serve as an input to their financial planning process, the time period(s) used, and how these risks and opportunities are prioritized. Organizations' disclosures should reflect a holistic picture of the interdependencies among the factors that affect their ability to create value over time. Organizations should also consider including in their disclosures the impact on financial planning in the following are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erating costs and revenues - Capital expenditures and capital allocation - Acquisitions or divestments - Access to capital <p>If climate-related scenarios were used to inform the organization's strategy and financial planning, such scenarios should be described.</p>
Recommended Disclosure c) Describe the resilience of the organization's strategy, taking into consideration different climate-related scenarios, including a 2°C or lower scenario.	Guidance for All Sectors Organizations should describe how resilient their strategies are to climate-related risks and opportunities, taking into consideration a transition to a lower-carbon economy consistent with a 2°C or lower scenario and, where relevant to the organization, scenarios consistent with increased physical climate-related risks. Organizations should consider discuss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ere they believe their strategies may be affected by climate-related risks and opportunities; - how their strategies might change to address such potential risks and opportunities; and - the climate-related scenarios and associated time horizon(s) considered. Refer to Section D in the Task Force's report for information on applying scenarios to forward-looking analysis.

3. Risk Management

Investors and other stakeholders need to understand how an organization's climate-related risks are identified, assessed, and managed and whether those processes are integrated in existing risk management processes. Such information supports users of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in evaluating the organization's overall risk profile and risk management activities.

Risk Management	
Disclose how the organization identifies, assesses, and manages climate-related risks.	
Recommended Disclosure a) Describe the	Guidance for All Sectors Organizations should describe their risk management processes for identifying and assessing climate-related risks. An important aspect of this

organization's processes for identifying and assessing climate-related risks.	<p>description is how organizations determine the relative significance of climate-related risks in relation to other risks.</p> <p>Organizations should describe whether they consider existing and emerging regulatory requirements related to climate change (e.g., limits on emissions) as well as other relevant factors considered.</p> <p>Organizations should also consider disclosing the followin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cesses for assessing the potential size and scope of identified climate-related risks and - definitions of risk terminology used or references to existing risk classification frameworks used.
Recommended Disclosure b) Describe the organization's processes for managing climate-related risks.	<p>Guidance for All Sectors</p> <p>Organizations should describe their processes for managing climate-related risks, including how they make decisions to mitigate, transfer, accept, or control those risks. In addition, organizations should describe their processes for prioritizing climate-related risks, including how materiality determinations are made within their organizations.</p> <p>In describing their processes for managing climate-related risks, organizations should address the risks included in Tables 1 and 2 (pp. 10-11), as appropriate.</p>
Recommended Disclosure c) Describe how processes for identifying, assessing, and managing climate-related risks are integrated into the organization's overall risk management.	<p>Guidance for All Sectors</p> <p>Organizations should describe how their processes for identifying, assessing, and managing climate-related risks are integrated into their overall risk management.</p>

4. Metrics and Targets

Investors and other stakeholders need to understand how an organization measures and monitors its climate-related risks and opportunities. Access to the metrics and targets used by an organization allows investors and other stakeholders to better assess the organization's potential risk-adjusted returns,

ability to meet financial obligations, general exposure to climate-related issues, and progress in managing or adapting to those issues.

Metrics and Targets Disclose the metrics and targets used to assess and manage relevant climate-related risks and opportunities where such information is material.	
Recommended Disclosure a) Disclose the metrics used by the organization to assess climate-related risks and opportunities in line with its strategy and risk management process.	Guidance for All Sectors Organizations should provide the key metrics used to measure and manage climate-related risks and opportunities, as described in Tables 1 and 2 (pp. 10-11). Organizations should consider including metrics on climate-related risks associated with water, energy, land use, and waste management where relevant and applicable. Where climate-related issues are material, organizations should consider describing whether and how related performance metrics are incorporated into remuneration policies. Where relevant, organizations should provide their internal carbon prices as well as climate-related opportunity metrics such as revenue from products and services designed for a lower-carbon economy. Metrics should be provided for historical periods to allow for trend analysis. In addition, where not apparent, organizations should provide a description of the methodologies used to calculate or estimate climate-related metrics.
Recommended Disclosure b) Disclose Scope 1, Scope 2, and, if appropriate, Scope 3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and the related risks.	Guidance for All Sectors Organizations should provide their Scope 1 and Scope 2 GHG emissions and, if appropriate, Scope 3 GHG emissions and the related risks. GHG emissions should be calculated in line with the GHG Protocol methodology to allow for aggregation and comparability across organizations and jurisdictions. As appropriate, organizations should consider providing related, generally accepted industry-specific GHG efficiency ratios. GHG emissions and associated metrics should be provided for historical periods to allow for trend analysis. In addition, where not apparent, organizations should provide a description of the methodologies used to calculate or estimate the metrics.
Recommended Disclosure c) Describe the targets used by the organization to manage climate-related risks and	Guidance for All Sectors Organizations should describe their key climate-related targets such as those related to GHG emissions, water usage, energy usage, etc., in line with anticipated regulatory requirements or market constraints or other goals. Other goals may include efficiency or financial goals, financial loss tolerances, avoided GHG emissions through the entire product life cycle, or net revenue goals for products and services designed for a lower-carbon economy. In describing their targets, organizations should consider including the

opportunities and performance against targets.	<p>followin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ether the target is absolute or intensity based, - time frames over which the target applies, - base year from which progress is measured, and - key performance indicators used to assess progress against targets. <p>Where not apparent, organizations should provide a description of the methodologies used to calculate targets and measures.</p>
--	--

[번역문]

C. 모든 섹터에 대한 지침

태스크포스는 권고안 및 권고 정보공개와 일치하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의 공개를 개발하는 모든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해 왔다. 이 지침은 권고 정보공개 이행을 위한 배경 및 제안을 제공함으로써 작성자를 지원한다. 조직의 권고안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역량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동 지침은 공개하거나 고려해야 할 정보 유형에 관해 설명한다.

1. 지배구조

투자자, 대출기관, 보험업자 및 기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의 이용자(총칭하여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라고 함)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슈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조직의 경영진 역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슈를 감독하는데 있어서 이사회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기후변화 관련 이슈가 이사회 및 경영진의 적절한 관심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지원한다.

지배구조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조직의 지배구조를 공개한다.	
권고 정보공개 a)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에	모든 섹터에 대한 지침 기후변화 관련 이슈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을 기술함에 있어서 조직은 다음에 대한 논의를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이사회 및/또는 운영위원회(예: 감사, 위험관리 또는 기타 위원회)가

대한 이사회 감독을 설명한다.	기후변화 관련 이슈에 관해 통보받는 프로세스 및 빈도, - 이사회 및/또는 운영위원회가 조직의 성과목표 설정, 이행 및 성과 모니터링, 그리고 주요 자본지출, 인수 및 매각을 감독할 때와 더불어, 전략, 주요 조치계획, 리스크 관리정책, 연간 예산 및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지시할 때 기후변화 관련 이슈를 고려하는지 여부, 그리고 - 이사회가 기후변화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 및 대상에 대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감독하는 방법
권고 정보공개 b)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을 설명한다.	모든 섹터에 대한 지침 기후변화 관련 이슈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된 경영진의 역할을 설명할 때, 조직은 다음의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 조직의 관리직위 또는 위원회에 기후변화 관련 책임을 부여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관리직 또는 위원회가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지 여부와 그러한 책임이 기후변화 관련 이슈의 평가 및/또는 관리를 포함하는지 여부, - 관련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 - 경영진이 (특정 직책 및/또는 관리위원회를 통해) 기후변화 관련 이슈를 모니터링 하는 방법

2. 전략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는 기후변화 관련 이슈가 단기, 중기 및 장기적으로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조직의 향후 성과에 대한 기대치를 알려주기 위해 사용된다.

전략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의 정보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경우 그러한 정보가 중요한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계획에 미치는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영향을 공개한다.	
권고 정보공개 a) 조직이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확인한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설명한다.	모든 섹터에 대한 지침 조직은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조직의 자산 또는 기반시설의 내용연수와 기후변화 관련 이슈가 중장기에 걸쳐 종종 나타나는 사실을 고려하여, 이와 관련해 단기, 중기 및 장기간의 주기로 검토하는 것에 대한 설명, - 조직에 중대한 재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시간주기(단기, 중기 및 장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후변화 관련 이슈에 대한 설명, 그리고 - 어떤 위험과 기회가 조직에 중대한 재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 적절한 경우 조직은 섹터 및/또는 지역별 위험과 기회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조직은 기후변화 관련 이슈를 설명할 때 표1과 2(10~11페이지)를 참조해야 한다.
권고	모든 섹터에 대한 지침

<p>정보공개 b)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가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p>	<p>권고 정보공개(a)를 바탕으로 확인된 기후변화 관련 이슈가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논의해야 한다. 조직은 다음 영역에서 사업 및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및 서비스 - 공급망 및/또는 가치사슬 - 적응 및 완화 활동 - 연구개발 및 투자 - 운영 (운영 유형 및 시설위치 포함) <p>조직은 기후변화 관련 이슈가 재무계획 프로세스의 투입으로 작용하는 방법, 사용된 시간주기 및 이러한 위험과 기회의 우선순위가 매겨지는 방법에 관해 설명한다. 조직의 정보공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간의 상호 의존성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반영해야 한다. 조직은 또한 다음 영역에서 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정보공개를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비용 및 수익 - 자본지출 및 자본배분 - 인수 또는 매각 - 자본 접근성 <p>기후변화 관련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조직의 전략과 재무계획을 알리는 경우에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설명해야 한다.</p>
<p>권고 정보공개 c) 2°C 이하의 시나리오를 포함해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조직 전략의 회복탄력성을 설명한다.</p>	<p>모든 섹터에 대한 지침</p> <p>조직은 2°C 이하 시나리오 및 조직과 관련이 있는 경우 물리적 기후변화 관련 위험의 증가와 일관된 시나리오와 일치하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전략이 얼마나 탄력적인지를 설명해야 한다.</p> <p>조직은 다음 사항의 논의를 고려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의 전략이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 그러한 잠재적 위험과 기회를 다루기 위해 전략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것, 그리고 - 기후변화 관련 시나리오와 관련된 시간주기 <p>미래예측적 전망 분석에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정보는 섹션 D를 참조하라.</p>

3. 위험관리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는 조직의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방법과 이러한 프로세스가 기존의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통합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조직의 전반적인 위험 프로파일 및 위험관리 활동을 평가할 때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이용자를 지원한다.

위험관리 조직이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방법을 공개한다.	
권고 정보공개 a)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조직의 프로세스를 설명한다.	모든 섹터에 대한 지침 조직은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설명해야 한다. 이 설명의 중요한 측면은 조직이 다른 위험과 관련하여 기후변화 관련 위험의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조직은 기후변화 관련 현존하거나 새로 등장하는 규제요건(예: 배출량 제한) 및 고려되는 기타 관련요인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조직은 또한 다음을 공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확인된 기후변화 관련 위험의 잠재적 규모와 범위를 평가하는 프로세스 및 - 사용된 위험용어의 정의 또는 기존 위험분류 프레임워크에 대한 참조사항
권고 정보공개 b)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의 프로세스를 설명한다.	모든 섹터에 대한 지침 조직은 기후관련 위험을 완화, 전가, 수용 또는 통제하기 위한 의사결정 방법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조직은 중요성 결정이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관련 위험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프로세스를 설명해야 한다.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설명할 때, 조직은 적절한 경우 표1과 2(10~11페이지)에 포함된 위험을 다루어야 한다.
권고 정보공개 c)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조직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통합되는 방법을 설명한다.	모든 섹터에 대한 지침 조직은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전반적인 조직의 리스크관리에 어떻게 통합되는지 설명해야 한다.

4. 지표와 감축목표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는 조직의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한다. 조직이 사용하는 지표와 감축목표에 대한 접근을 통해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는 조직의 잠재적 위험조정 수익률, 재무적 부채 이행능력, 기후변화 관련 이슈에 대한 일반적인 노출 및 이러한 문제를 관리하거나 적응하는 과정을 더 잘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또한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섹터 또는 산업 내 조직을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지표와 감축목표	
해당 정보가 재무적으로 중요한 경우 연관된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지표와 감축목표를 공개한다.	
권고 정보공개 a) 조직이 전략 및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지표를 공개한다.	모든 섹터에 대한 지침 조직은 표1과 2(10~11페이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측정하고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주요 지표를 제공해야 한다. 조직은 관련성 있고 적용 가능한 경우 물, 에너지, 토지 이용 및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기후변화 관련 위험에 관한 지표를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기후변화 관련 이슈가 중요한 경우 조직은 관련 성과지표가 보수정책에 통합되는지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해 설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관련성이 있는 경우 저탄소 경제를 위하여 고안된 제품 및 서비스의 수익과 같은 기후변화 관련 기회 지표와 더불어 내부 탄소가격을 제공해야 한다. 추세분석이 가능하도록 과거 기간에 대한 지표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명확하지 않은 경우 조직은 기후변화 관련 지표를 계산하거나 추정하는데 사용되는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권고 정보공개 b) Scope 1, Scope 2,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Scope 3 온실가스(GHG) 배출량 및 관련 위험을 공개한다.	모든 섹터에 대한 지침 조직은 Scope 1, Scope 2 GHG 배출량,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Scope 3 GHG 배출량 및 관련 위험을 제공해야 한다. GHG 배출량은 GHG 프로토콜 방법론에 따라 계산되어 조직과 관할 구역에 걸쳐 집계 및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적절한 경우 조직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산업별 GHG 효율비율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추세분석이 가능하도록 과거기간에 대한 GHG 배출량 및 관련 지표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명확하지 않은 경우 조직은 지표를 계산하거나 추정하는데 사용된 방법론에 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권고 정보공개 c)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 및 목표대비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조직에서 사용하는 목표를 설명한다.	모든 섹터에 대한 지침 조직은 예상되는 규제요건, 시장제약 또는 기타 목표에 따라 GHG 배출량, 물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 등과 같은 주요한 기후변화 관련 목표를 설명해야 한다. 기타 목표에는 효율성 또는 재무목표, 재무적 손실 허용 오차, 전체 제품 수명주기를 통한 GHG 배출량 방지, 또는 저탄소 경제를 위해 고안된 제품 및 서비스의 순수익 목표가 포함될 수 있다. 목표를 설명할 때 조직은 다음을 포함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가 절대적인지 집약도 기준인지, - 목표가 적용되는 시간 프레임, - 진행상황이 측정되는 기준연도, 그리고 - 목표대비 진행상황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주요 성과지표 명확하지 않은 경우 조직은 목표와 측정을 계산하는데 사용된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나. 적도원칙(The Equator Principles, July 2020) 주요내용

[원 문]

Principle 1: Review and Categorisation

When a Project is proposed for financing, the EPFI will, as part of its internal environmental and social review and due diligence, categorise the Project based on the magnitude of potential environmental and social risks and impacts, including those related to Human Rights, climate change, and biodiversity. Such categorisation is based on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s (IFC) environmental and social categorisation process. The categories are:

Category A - Projects with potential significant adverse environmental and social risks and/or impacts that are diverse, irreversible or unprecedented;

Category B - Projects with potential limited adverse environmental and social risks and/or impacts that are few in number, generally site-specific, largely reversible and readily addressed through mitigation measures; and

Category C - Projects with minimal or no adverse environmental and social risks and/or impacts.

The EPFI's environmental and social due diligence is commensurate with the nature, scale and stage of the Project, and with the categorised level of environmental and social risks and impacts.

Principle 2: Environmental and Social Assessment

The EPFI will require the client to conduct an appropriate Assessment process to address, to the EPFI's satisfaction, the relevant environmental and social risks and scale of impacts of the proposed Project (which may include the illustrative list of issues found in Exhibit II). The Assessment Documentation should propose measures to minimise, mitigate, and where residual impacts remain, to compensate/offset/remedy for risks and impacts to Workers, Affected Communities, and the environment, in a manner relevant and appropriate to the nature and scale of the proposed Project.

Principle 3: Applicable Environmental and Social Standards

The Assessment process should, in the first instance, address compliance with relevant host country laws, regulations and permits that pertain to environmental and social issues.

Principle 4: Environmental and Social Management System and Equator Principles

Action Plan For all Category A and Category B Projects the EPFI will require the client to develop and / or maintain an Environmental and Social Management System (ESMS).

Principle 5: Stakeholder Engagement

For all Category A and Category B Projects the EPFI will require the client to demonstrate effective Stakeholder Engagement, as an ongoing process in a structured and culturally appropriate manner, with Affected Communities, Workers and, where relevant, Other Stakeholders.

Principle 6: Grievance Mechanism

For all Category A and, as appropriate, Category B Projects, the EPFI will require the client, as part of the ESMS, to establish effective grievance mechanisms which are designed for use by Affected Communities and Workers, as appropriate, to receive and facilitate resolution of concerns and grievances about the Project's environmental and social performance.

Principle 7: Independent Review

For all Category A and, as appropriate, Category B Projects, an Independent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ultant, will carry out an Independent Review of the Assessment process including the ESMPs, the ESMS, and the Stakeholder Engagement process documentation in order to assist the EPFI's due diligence and determination of Equator Principles compliance. The Independent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ultant will also propose or opine on a suitable EPAP capable of bringing the Project into compliance with the Equator Principles, or indicate where there is a justified deviation from the applicable standards. The Independent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ultant must be able to demonstrate expertise in evaluating the types of environmental and social risks and impacts relevant to the Project.

Principle 8: Covenants

The client will covenant in the financing documentation to comply with all relevant host country environmental and social laws, regulations and permits in all material respects.

Principle 9: Independent Monitoring and Reporting

For all Category A and, as appropriate, Category B Projects, in order to assess Project compliance with the Equator Principles after Financial Close and over the life of the loan, the EPFI will require independent monitoring and reporting. Monitoring and reporting should be provided by an Independent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ultant; alternatively, the EPFI will require that the client retain qualified and experienced external experts to verify its monitoring information, which will be shared with the EPFI in accordance with the frequency required in Principle 8b.

Principle 10: Reporting and Transparency

The EPFI will, at least annually, report publicly on transactions that have reached Financial Close and on its Equator Principles implementation processes and experience. The EPFI will report according to the minimum reporting requirements detailed in Annex B, taking into account appropriate confidentiality considerations.

[번역문]

원칙 1: 검토 및 등급 분류

프로젝트에 대하여 금융 지원이 요청된 경우, EPFI(적도원칙 채택 금융기관)는 내부 환경·사회 검토 및 실사의 일환으로 인권, 기후 변화 및 생물다양성 관련 위험과 영향을 포함한 프로젝트의 잠재적 환경·사회 위험과 영향의 규모에 근거하여 등급을 분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등급 분류는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이하 “IFC”)의 환경·사회 등급 분류 프로세스에 근거한다. 등급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A등급 - 부정적인 잠재적 환경·사회 위험 및/또는 영향을 중대하게 미치는 프로젝트로서, 해당 위험 및/또는 영향이 다양하거나, 회복불능이거나 또는 전례가 없는 경우
- B등급 - 부정적인 잠재적 환경·사회 위험 및/또는 영향을 제한적으로 미치는 프로젝트로서, 해당 위험 및/또는 영향의 건수가 적고, 범위가 대체로 현장에 국한되며, 대부분 회복 가능하고, 경감방안을 통해 용이하게 대처 가능한 경우
- C등급 - 부정적인 환경·사회 위험 및/또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없는 프로젝트

EPFI의 환경·사회 실사는 프로젝트의 특성, 규모, 개발단계와 환경·사회 위험 및 영향 수준의 분류 등급에 비례하여 실시된다.

원칙 2: 환경·사회 평가

EPFI는 고객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환경·사회 위험과 영향의 규모(별지 II의 예시목록에 열거된 이슈가 포함될 수 있음)를 EPFI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루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사회 평가 프로세스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평가문서는 근로자(Workers),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Affected Communities) 및 환경에 미치는 위험과 영향을 프로젝트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적절하고 타당한 방식으로 최소화 또는 경감하고, 그러한 영향이 잔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상쇄/치유를 실시하기 위한 조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원칙 3: 적용되는 환경·사회 기준

환경·사회 평가 프로세스는 우선적으로 프로젝트 소재국의 환경·사회 이슈 관련 법률, 규정 및 인허가 사항의 준수 여부를 다루어야 한다.

원칙 4: 환경·사회 관리시스템 및 적도원칙 액션플랜

모든 A등급과 B등급 프로젝트의 경우, EPFI는 고객에게 환경·

사회 관리시스템(Environmental and Social Management System, 이하 “ESMS”)의 구축 및/또는 유지를 요구하여야 한다.

원칙 5: 이해관계자 참여

모든 A등급과 B등급 프로젝트의 경우, EPFI는 고객에게 효과적인 이해관계자 참여(Stakeholder Engagement)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는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근로자와 해당시 기타 이해관계자(Other Stakeholders)와 함께 체계적이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지속적인 프로세스여야 한다.

원칙 6: 고충처리 메커니즘

모든 A등급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B등급 프로젝트의 경우, EPFI는 고객에게 ESMS의 일환으로 프로젝트의 환경·사회적 성과에 대한 우려와 불만사항의 접수 및 해결을 위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필요시 근로자 용도의 고충처리 메커니즘(Grievance Mechanism)을 구축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원칙 7: 독립 검토

모든 A등급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B등급 프로젝트의 경우, 독립 환경·사회 컨설턴트는 EPFI의 실사 및 적도원칙 준수 여부의 판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ESMP, ESMS, 그리고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 문서를 포함한 환경·사회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독립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원칙 8: 서약

고객은 환경·사회와 관련된 소재국의 모든 법률, 규정 및 인허가 사항을 모든 중요 측면에서 준수할 것임을 금융계약서에 서약하여야 한다.

원칙 9: 독립 모니터링 및 보고

모든 A등급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B등급 프로젝트의 경우, EPFI는 금융종결(Financial Close) 이후 그리고 대출기간 동안 프로젝트의 적도원칙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독립 모니터링과 보고를 요구하여야 한다. 모니터링과 보고는 독립 환경·사회 컨설턴트에 의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원칙 10: 정보공개 및 투명성

EPFI는 금융종결 거래와 적도원칙 이행 프로세스 및 경험에 대하여 최소한 연 1회 공개하여야 한다.

다. EU 지속가능금융 실행계획(Action Plan: Financing Sustainable Growth) 주요내용

[원 문]

2 Reorienting capital flows towards a more sustainable economy

2.1 A unified classification system for sustainable activities

A shift of capital flows towards more sustainable economic activities has to be underpinned by a shared understanding of what 'sustainable' means. A unified EU classification system – or taxonomy – will provide clarity on which activities can be considered 'sustainable'. It is at this stage the most important and urgent action of this Action Plan.

Action 1: Establishing an EU classification system for sustainable activities

2.2 Standards and labels for sustainable financial products

Building on the future EU sustainability taxonomy, EU standards and labels for sustainable financial products would

protect the integrity of and trust in the sustainable financial market, as well as enable easier access for investors seeking those products. For instance, green bonds allow entities (companies, banks, governmental organisations, etc.) to borrow money from investors in order to finance or re-finance 'green' projects, assets or business activities.

Action 2: Creating standards and labels for green financial products

2.3 Fostering investment in sustainable projects

Mobilising private capital for sustainable projects, especially for infrastructure, is a prerequisite for the transition to a more sustainable economic model. According to the OECD, infrastructure contributes to about 60% of greenhouse gas emissions. Given the needs for sustainable infrastructure investment, continued progress in developing appropriate frameworks to leverage private investment alongside public funds is key.

Action 3: Fostering investment in sustainable projects

2.4 Sustainability considerations in financial advice

By providing advice, investment firms and insurance distributors can play a central role in reorienting the financial system towards sustainability. Prior to the advisory process, these intermediaries are required to assess clients' investment objectives and risk tolerance in order to recommend suitable financial instruments or insurance products. However, investors' and beneficiaries' preferences as regards sustainability are often not sufficiently taken into account when advice is given.

Action 4: Incorporating sustainability when providing financial advice

2.5 Sustainability benchmarks

Benchmarks are indices that play a central role in the price form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 and other relevant assets in the financial system. Benchmarks are useful instruments for investors, as they allow to track and measure performance and allocate assets accordingly.

More transparent and sounder sustainable indices' methodologies are needed to reduce greenwashing risks.

Action 5: Developing sustainability benchmarks

3 Mainstreaming sustainability into risk management

3.1 Sustainability in market research and credit ratings

In recent years, market research providers and sustainability rating agencies have stepped up their efforts to assess companies'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performance and their ability to manage sustainability risks. Such assessments contribute to a more sustainable allocation of capital and improve the information flow between issuers and investors. The lack of broadly-accepted market standards to assess companies' sustainability performance makes the transparency of the methodology used by research providers particularly important.

Action 6: Better integrating sustainability in ratings and market research

3.2 Institutional investors' and asset managers'

sustainability duties

Several pieces of EU legislation require institutional investors and asset managers to act in the best interest of their end-investors/beneficiaries. This is commonly referred to as 'fiduciary duty'. However, current EU rules on the duty of institutional investors and asset managers to consider sustainability factors and risks in the investment decision process are neither sufficiently clear nor consistent across sectors.

Action 7: Clarifying institutional investors' and asset managers' duties

3.3 Prudential requirements for banks and insurance companies

Banks, insurance companies and pension funds are the main source of external finance for the European economy and an important channel of savings for investments. As a result, they could provide the critical mass of investments needed to close the gap for the transition to a more sustainable economy. However, banks, insurance companies and pension funds may also be exposed to risks related to un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For instance, some estimates suggest that at least half of the assets of banks in the Euro area are currently exposed to climate change-related risks.

Action 8: Incorporating sustainability in prudential requirements
--

4. Fostering transparency and long-termism

4.1 Disclosure and accounting

Corporate reporting on sustainability issues enables investors and stakeholders to assess companies' long-term value creation and their sustainability risk exposure. Since 2018, the EU Directive on the disclosure of Non-Financial Information (NFI) requires large public interest entities to disclose material information on key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aspects and how risks stemming from them are managed.

There are also growing concerns that the current accounting rules are not conducive to sustainable investment decision-making. In this regard, consideration is needed about whether there could be more flexibility as concerns the endorsement of IFRSs wherever specific adjustments would be more conducive to long-term investment.

Action 9: Strengthening sustainability disclosure and accounting rule-making
--

4.2 Corporate governance and undue capital market short-termism

Corporate governance can significantly contribute to a more sustainable economy, allowing companies to take the strategic steps necessary to develop new technologies, to strengthen business models and to improve performance.

Despite the efforts made by several European companies, undue short-term market pressures may make it difficult to lengthen the time horizon in corporate decision-making. Corporate managers may become overly focused on short-term financial performance and disregard opportunities and risks stemming from environmental and social sustainability considerations.

Action 10: Fostering sustainable corporate governance and attenuating short-termism in capital markets
--

[번역문]

2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자본흐름 전환

2.1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통합된 분류체계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한 자본흐름의 전환은 ‘지속가능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통합된 EU의 분류체계는 무엇이 ‘지속가능한’ 활동인지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체계의 정립이 이 액션플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실행 1: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EU 녹색분류체계 구축

2.2 지속가능한 금융상품을 위한 식별기준 및 인증제도

EU 지속가능성 분류체계를 개발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금융상품을 위한 EU의 식별기준과 인증제도는 지속가능한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보호할 뿐 아니라, 해당 금융상품을 찾는 투자자의 접근성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 예를 들어, 녹색채권은 기관(회사, 은행, 정부기관 등)이 '녹색' 프로젝트, 자산 또는 사업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거나 채용자를 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한다.

실행 2: 녹색금융 상품을 위한 식별기준 및 인증제도 개발

2.3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촉진

지속가능한 프로젝트, 특히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간자본을 동원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로의 전환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OECD에 따르면 인프라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0%를 차지한다. 지속가능한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공적자금과 함께 민간투자를 활용하기 위한 적절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핵심이다.

실행 3: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촉진

2.4 금융자문에 있어 지속가능성 고려

금융자문을 제공함으로써 투자회사와 보험판매사는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자문 절차에 앞서 이러한 중개자는 적절한 금융상품이나 보험 상품을 추천하기 위해 고객의 투자목표와 위험의 허용범위를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자와 수익자의 선호도는 금융자문을 할 때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행 4: 금융자문 제공시 지속가능성 요소 고려

2.5 지속가능성 벤치마크

벤치마크는 금융시스템에서 금융상품 및 기타 관련자산의 가격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수이다. 벤치마크는 성과를 추적 및 측정하고 그에 따라 자산을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유용한 도구이다.

그린워싱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지속 가능한 지수의 방법론이 필요하다.

실행 5: 지속가능성 벤치마크 개발

3 리스크관리에 지속가능성 고려

3.1 시장조사와 신용평가에 있어 지속가능성

최근 몇 년 동안 시장조사 기관과 지속가능성 평가기관은 기업의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의 성과와 지속가능성 리스크관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왔다. 이러한 평가는 지속가능한 자본 배분에 기여하고 발행자와 투자자 간의 정보의 교환을 촉진한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시장의 표준이 없기 때문에 조사기관이 사용하는 방법론의 투명성이 특히 중요하다.

실행 6: 신용평가와 시장조사시 지속가능성 고려

3.2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사의 지속가능성 의무

일부 EU 규제는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사가 최종 투자자 및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일반적으로 '충실의무'라고 한다. 그러나 투자결정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요소와 위험을 고려하는 기관투자자 및 자산운용사의 의무에 대한 현재의 EU 규정은 충분히 명확하거나 일관적이지 않다.

실행 7: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사 의무에 지속가능성 포함

3.3 은행과 보험회사를 위한 건전성 요구사항

은행, 보험회사 및 연기금은 유럽 경제를 위한 외부 자본조달의 주요 원천이며 투자를 위한 중요한 비축의 통로이다. 결과적으로 은행 등은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투자액을 제공 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 보험회사 및 연기금도

지속가능성이 없는 경제발전과 관련된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추정에 따르면 유럽의 은행 자산의 절반 이상이 현재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실행 8: 금융회사의 건전성 요구사항에 지속가능성 고려

4. 투명성 및 장기 성과주의

4.1 공시와 회계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기업보고를 통해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창출과 지속가능성 위험에 대한 노출을 평가할 수 있다. 2018년부터 비재무정보(NFI) 공개에 관한 EU 지침은 대형 공익단체가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측면에 대한 중요한 정보와 그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공개하도록 요구해 오고 있다.

현재의 회계기준이 지속가능한 투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적인 투자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제회계기준의 조정과 승인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실행 9: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공시 및 회계규정 강화

4.2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의 과도한 단기 성과주의

기업 지배구조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 모델을 강화하며 성과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전략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유럽의 다수 기업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단기 성과주의 압박으로 인해 기업의 의사 결정 기간을 늘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기업 관리자는 단기적인 재무성과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환경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에서 비롯된 기회와 위험을 무시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본 시장 압력과 기업 인센티브 간의 상호 작용은 지속 가능성 위험에 장기적으로 불필요한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

실행 10: 지속가능한 기업 지배구조의 촉진 및 자본시장의 단기 성과주의 지양

라. 환경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금융기관의 UN 환경계획
선언문(UNEP Statement by Financial Institutions on
the Environment & Sustainable Development)

[원 문]

We members of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recognize that sustainable development depends upon a positive interaction betwee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o balance the interests of this and future generations. We further recognize that sustainable development is the collective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business, and individuals. We are committed to working cooperatively with these sectors within the framework of market mechanisms toward common environmental goals.

1. Commitment to Sustainable Development

1.1 We regard sustainable development as a fundamental aspect of sound business management.

1.2 Believe that sustainable development can best be achieved by allowing markets to work within an appropriate framework of cost-efficient regulations and economic

instruments. Governments in all countries have a leadership role in establishing and enforcing long-term common environmental priorities and values.

1.3 We regard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as an important contributor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in association with other economic sectors.

1.4 We recognize that sustainable development is a corporate commitment and an integral part of our pursuit of good corporate citizenship.

2.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Financial Institutions

2.1 We support the precautionary approach to environmental management, which strives to anticipate and prevent potential environmental degradation.

2.2 We are committed to complying with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applicable to our operations and business services. We will work towards integrating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into our operations, asset management, and other business decisions, in all markets.

- 2.3 We recognize that identifying and quantifying environmental risks should be part of the normal process of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both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operations. With regard to our customers, we regard compliance with applicable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the use of sound environmental practices as important factors in demonstrating effective corporate management.
- 2.4 We will endeavor to pursue the best practice in environmental management, including energy efficiency, recycling and waste reduction. We will seek to form business relations with partners, suppliers, and subcontractors who follow similarly high environmental standards.
- 2.5 We intend to update our practices periodically to incorporate relevant development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We encourage the industry to undertake research in these and related areas.
- 2.6 We recognize the need to conduct internal environmental reviews on a periodic basis, and to measure our

activities against our environmental goals.

- 2.7 We encourage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to develop products and services which will promote environmental protection.

3. Public Awareness and Communication

- 3.1 We recommend that financial institutions develop and publish a statement of their environmental policy and periodically report on the steps they have taken to promot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into their operations.
- 3.2 We will share information with customers, as appropriate, so that they may strengthen their own capacity to reduce environmental risk and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 3.3 We will foster openness and dialogue relating to environmental matters with relevant audiences, including shareholders, employees, customers, governments, and the public.

3.4 We ask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to assist the industry to further the principles and goals of this Statement by providing, within its capacity, relevant information relating to sustainable development.

3.5 We will encourage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to support this Statement. We are committed to share with them our experiences and knowledge in order to extend best practices.

3.6 We will work with UNEP periodically to review the success in implementing this Statement and will revise it as appropriate.

We, the undersigned, endorse the principles set forth in the above statement and will endeavor to ensure that our policies and business actions promote the consideration of th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번역문]

금융서비스 산업을 영위하는 우리 참여기관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보장하는 지속가능발전이 경제와 사회 발전, 환경보호 사이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인식한다. 또한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이 정부, 기업, 개인의 공동 책임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우리는 시장질서의 틀 안에서 공동의 환경 목표를 향해 다른 경제부문들과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참여의지

- 1.1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을 건전한 기업경영의 근간으로 인식한다.
- 1.2 우리는 시장이 비용 효율적인 규제와 경제제도의 적절한 틀 안에서 작용할 때 지속가능발전이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음을 믿는다. 각 국 정부는 장기적으로 공통된 환경 우선순위와 가치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데에 앞장 설 의무를 갖는다.
- 1.3 우리는 다른 경제부문과의 협력 속에서 금융기관이 지속가능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 1.4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을 기업 시민의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인식한다.

2. 환경경영과 금융기관

- 2.1 우리는 잠재적인 환경파괴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환경경영에 대해 사전 예방적 접근을 지지한다.
- 2.2 우리는 기업 활동 및 서비스와 관련된 지역사회, 국가, 국제 환경규제를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모든 시장에서 기업운영, 자산관리, 기타 경영의사결정에 환경적 고려를 통합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 2.3 우리는 국내외 기업운영에 있어 환경적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이 리스크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한 표준 절차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함을 인정한다. 고객 차원에서 우리는 관련된 환경 법규를 준수하고 건전한 환경관행을 채택하는 것이 효과적인 기업경영의 증거임을 인식한다.
- 2.4 우리는 에너지효율, 재활용, 폐기물 감소 등 환경경영에 있어 우수사례의 도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높은 수준의 환경경영을 추구하는 협력사, 공급업체 및 하청 업체들과 사업관계를 맺을 것이다.
- 2.5 우리는 환경경영의 최신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 우리의 경영 관행을 개선할 것이다. 우리는 금융산업이 환경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적극 장려할 것이다.

2.6 우리는 주기적으로 내부 환경감사를 수행하고, 환경목표 대비 성과를 측정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2.7 우리는 금융서비스 부문이 환경보호를 촉진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3. 일반 대중의 인식 제고와 의사소통

3.1 우리는 금융기관이 환경지침을 발표하고 환경적 고려를 경영 활동에 통합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를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권고한다.

3.2 우리는 고객 스스로 환경리스크를 줄이고 지속가능발전을 지지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고객과 공유할 것이다.

3.3 우리는 환경문제에 관해 주주, 직원, 고객, 정부, 일반 대중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열린 자세를 취할 것이다.

3.4 우리는 UN 환경계획(UNEP)이 각 기업들에게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적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본 선언문의 원칙과 목표의 달성 과정을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3.5 우리는 다른 금융기관도 이 선언문을 지지하도록 장려한다.
우리는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상호 공유할 것을 약속한다.

3.6 우리는 UN 환경계획과 이 선언문의 이행 성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선언문을 개정해 나갈 것이다.

본 서명기관은 위 선언문에 언급된 원칙을 인정하고, 우리의
정책과 기업 활동이 환경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배려를 촉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부록2 「금융권 녹색금융 핸드북」 관련 담당자 목록

소 속	성명 및 직함	이메일 주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뉴딜금융과	전수한 과 장	jeon5001@korea.kr
	이영평 사무관	ypyunglee@korea.kr
	서승언 담 당	k140029@korea.kr
은행연합회 지속가능경영부	이인균 부 장	lik414@kfb.or.kr
	유미라 부부장	mryoo@kfb.or.kr
금융투자협회 산업총괄부	정수섭 부 장	suseop@kofia.or.kr
	서동수 과 장	dsseo@kofia.or.kr
생명보험협회 기획부	유제상 부 장	jesang@klia.or.kr
	박홍명 책 임	parkhm@klia.or.kr
손해보험협회 기획조정부	신종혁 부 장	iomi@knia.or.kr
	박상조 팀 장	psj@knia.or.kr
여신금융협회 종합기획부	조윤서 부 장	ysjo91@crefia.or.kr
	허민형 팀 장	jedi180@crefia.or.kr